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귀국 후 14일 이내 호흡기 증상 발생시 1339

2020년 2월 5일 ~ 2월 14일 제865호

# 충남도정



대한민국이 중심 **충청남도정** 발행인 문화체육부지사 편집인 공보관 창간 1990년 12월 15일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발행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전화 (041)635-2035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 양승조 도지사, 임시생활시설 현장에 집무실 '총력대응'

## 충남도, 우한 입국자 아산 임시생활시설 현장 직접통제

양지사, "우리 도민이 안전하게 격리자 귀가 때까지 마을서 생활"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철저 감시 주민 감염예방 안전확보 최우선

주변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지역경제 위축 막고 고통 분담

충남 아산에 위치한 국가기관시설인 경찰인재개발원 내 임시생활시설에 중국 우한 체류 교민·유학생 등이 도착한 가운데, 충남도가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 방위 대응에 나선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달 31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접 마을인 초사2동 마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시간부터 우한에서 온 우리 국민들이 이곳 임시생활시설에서 안전하게 묵으 귀가할 때까지 모든 집무와 회의, 일상생활을 이곳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충청남도 지방행정 최고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현장에서 철저히 상황을 지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오전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100m 남짓 떨어진 온양 5동 초사2동 마을에 임시집무실을 꾸리

고, 마을 내에 숙소를 마련했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은 1인 1실 생활이 가능한 국가 소속 공무원 교육원·연수원인 데다, 반경 1시간 이내에 유증상자 및 환자 치료가 가능한 종합 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또 주민 밀집 시설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고, 공항에서 무정차로 2시간 내 도착이 가능하며, 수용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 등 편의시설이 있어 지난달 29일 임시생활시설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아산시민은 물론 충남도민이 체류 교민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해 불안감을 호소하자, 양 지사는 임시생활시설의 안전과 철저한 방역 대응을 몸소 입증하고자 현장에 함께 나선 것이다.

양 지사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천안시민의 반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 비상회의를 통해 국가시설, 수용가능성, 의료적 측면, 공항접근성, 주민 이격성, 생활시설편이 등 6개 항목 평가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한편, 아산시민의 염려와 걱정을 도민과 국민들이 이해하고 보듬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설 입소 대상은 중국 우한에서의 귀국 전·후 1~2차 검역 시 무증상자로 분류된 국민이다. 이들은 입국 항공기 탑승 전 진료 등을 통해 탑승 여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달 31일, 우한시 재외국민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이 마련된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마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 지사는 임시 격리기간이 끝나는 14일 동안 초사2동 마을회관에 임시집무실을 꾸린 후, "막중한 책임감으로 현장을 철저히 지휘하겠다"라고 말했다.

부가 결정되고, 이동 시 모두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시설 입소 뒤에는 1인 1실에 배치돼 매일 의료진으로부터 발열 체크와 문진 등을 받으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퇴소 절차를 밟게 된다.

양 지사는 또 "정부와 검역당국이 법령과 매뉴얼에 준수해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게 되므로, 지역전파 가능성은 제로"라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집무실과 임시숙소를 꾸린 만큼, 상황을

확실하게 통제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남도는 임시생활시설 유지에 따른 인근 지역 및 아산시 경제 위축에 대비해, 도정회의 개최, 지역 방문하기, 음식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산시 전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체당 5000만원에 대한 보증수수료

0.5% 인하 ▲소상공인 이자보전금 1% 확대 ▲총 용자금 1400억 원 규모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한편 도는 이날 오전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충청남도 방역대책반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10개 실무반을 편성해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손유진 syj0319@korea.kr  
<관련기사 3, 11, 16면>

##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국민과 도민들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충남도지사 양승조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아산시 온양 5동 초사 2동 마을입니다. 오늘(1월 31일) 우한에서 입국하신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14일 동안 머무르게 될 임시생활시설인 경찰인재개발원이 여기서 100여m 거리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제 임시집무실을 꾸렸습니다. 숙소도 이곳 마을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 우한에서 온 우리 국민들이 이곳 임시생활시설에서 안전하게 묵으 귀가할 때까지 제 모든 집무와 회의, 그리고 일상생활을 이곳 마을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220만 충남도민이 뽑아준 충청남도 지방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우리 도민의 걱정과 염려, 그리고 모든 불안에 함께 대처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곳 현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철저히 지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몇 가지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첫째, 아산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염려에 공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이번 임시생활시설 결정으로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주민들은 바로 아산시민분들입니다. 아산시민분들의 염려와 걱정을 우리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정부의 결정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아산지역의 공공시설을 임시생활시설로 결정한 것은 천안지역주민의 반발에 의한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임시생활시설을 선정하고자 관계부처 비상회의를 통해 총

8곳의 후보지를 놓고 국가시설, 수용가능성, 의료적 측면, 공항 접근성, 주민 이격성, 생활 편의시설 등 총 6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1순위가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이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정치적 사안을 고려해서 반복된 결정이었다면 충남도지사로서 제가 먼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임시생활시설 설치에 따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 전파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우리 정부와 검역당국의 조치는 법령과 매뉴얼에 준수한 것입니다. 우한에서 들어오는 우리 국민은 귀국부터 시설로 이송까지 철저히 격리된 채 진행될 것입니다. 의료진과 보건당국의 관리 속에서 임시생활에서 정해진 규칙에 맞게 생활하게 됩니다.

마을에 대해서는 1일 1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는 방문 진료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또한 마스크, 실내살균소독제 등 개인 보호물품을 등은 이미 배부를 마쳤고 다중이용 시설 내에는 감염예방 물품을 비치했습니다. 임시생활시설로부터 지역전파 가능성은 없습니다.

**넷째, 생활시설 유지에 따른 이 지역의 경제 위축에 대해 중앙정부와 아산시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근 지역 상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도와 아산시,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도정회의 개최, 지역 방문하기, 음식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산시 전역의 피해우려에 대해 업체당 5000만원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0.5% 인하하고 소상공인 이자보전금 1% 확대하며, 총 용자금 1400억 원 규모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자금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해 주시고, 불안을 함께 나누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 지역주민들을 외롭게 두지 마십시오. 이 지역에 오셔서 관광지도 방문해 주시고, 지역 식당도 들러 주시기 바랍니다. 불안은 나눌수록 줄어들고, 믿음은 더할수록 커집니다.

충남도지사로서 저는 이제 이곳에 제 집무실과 임시숙소를 꾸리고 현장의 상황을 확실하게 통제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 보육 예산 5000억 돌파...43개 사업 중점 추진

# 농촌일손, “걱정 마세요”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등 전국 최초 신규 사업 돋보여 더 커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충남도의 보육사업 관련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0억 원을 넘어섰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겠다는 민선7기의 의지가 더 커졌다.

도는 올해 보육 관련 예산으로 총 5111억 원을 투입,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등 4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43개 사업 중 신규 사업은 ▲어린이

집 차액보육료 지원(만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 ▲지원시설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지원 등 4개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 중인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에 이어 올해 전국 최초로 만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 정부가 정한 만5세 유아 표준보육비용은 39만 6600원이고, 정부 지원 보육료는 24만 원이다.

여기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누리과정 운영비 4만 1780원(어린이집 세입 기준)을 지원받으면,

표준보육비용 기준으로 11만 472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만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은 이 차액을 도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총 투입 예산은 207억 4000만 원이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은 만5세반 교사의 경우 50%, 만3~4세반 교사는 30%를 도가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지원 사업 역시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투입 예산은 78억 7400만 원이다.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에는 5억 3100만 원을 투입한다. ●출산보육정책과 041-635-4541

농작업지원단 신청·접수 중 1ha 이하, 65세 이상 농가

충남도가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맞춤형 농작업지원단’을 확대 운영한다. 농작업지원단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규모에 따라 맞춤형 농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고령농가에는 밭작물의 최대 애로사항인 농기계 작업 인력을 연계하고, 작업료의 70%를 지원한다. 과수 및 시설 기반 대규모 전업농가에는 파종, 적과 수확 등의 농작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증개하고, 작업자에 대한 교통비, 간식비 및 상해보험료 가입을 지원한다. 2018년 5개 시·군 5개소를 시작으로 시범 추진한 농작업지원단은 지난해 13개 시·군 20개소로 확대 운영했다. 올해는 이를 14개 시·군 5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1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65세 이상 농가’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시·군 농정 부서나 해당 지역농협에 문의·신청(연중)하면 된다. 농기계 작업지원 및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고 싶은 대상자 역시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관련 교육을 거쳐 작업자로 활동할 수 있다. ●식량원예과 041-635-4041

## 도정만평

설인호



## A형간염 고위험군 질병 부담 ↓

20~40대 고위험군 대상 2회 무료 예방접종 실시

충남도가 A형간염 감염 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은 만성 B형간염 및 C형간염, 간경변 등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A형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 질병 부담을 완화했다.

A형간염 예방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하며, 접종 시기는 1차 상반기, 2차 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예방접종은 고위험군 상병코드로 입원 또는 외래 진료 기록이 있

는 20~40대(1970~1999년생) 가운데 과거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이미 항체가 형성된 사람을 제외한 약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항체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받으면 된다.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시행 시기와 항체검사 가능 여부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항체검사 및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보건정책과 041-635-4292



예산군 치매 관리 사례 ‘세계서 인정’ 지난해 전국 치매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예산군 치매안심센터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치매관리 사업 정책자문을 맡게 됐다. 지난달 14일 예산군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관계자는 ▲조기검진·등록관리 ▲사례관리 등을 살펴, ‘고령화 관련 행동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9

1711명 청년일자리 마련해 지역 인구 유출 막는다

충남도가 올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1711여 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 사업은 도내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은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뉜다.

지역정착지원형은 마을기업, 농업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기반 법인·단체 등에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활성화를 통한 청년유입, 유출방지로 지역 활력 제고

가 목적이다. 올해는 53개 사업에 3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513명에 2년간 월 200만원의 임금과 연 300만원 상당의 자격증 취득 및 직무교육을 제공한다.

참여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와 충남일자리종합센터,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정책과 041-635-3994

## ‘사회적경제’ 라는 삶 이야기

2020년 충남연구원 현장이야기 ②논산의 사회적경제활동

최근 ‘사회적경제’는 국가적 정책으로, 그리고 전략사업으로 신문 지면을 장식하는 뜨거운 이슈다. 그러나 정작 사회적경제가 무엇이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사회적경제가 사회와 경제에 ‘어딘가’에 걸쳐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의 일이라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시민(도민)의

힘으로 해결하는 ‘사회운동’으로, 경제의 일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인식해 왔다. 그러나 더 이상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도래하였다. 이에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보자는, 한마디로 ‘사회운동을 하는 기업활동’으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사회적경제의 시작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과 삶의 불편을 해소하는 우리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시작된다. 오늘은 논산의 사회적경제활동들을 찾아가 본다.

C메이커협동조합은 논산에서 SW 코딩, 3D프린팅 교육사업을 하는 사

회적경제 조직이다. 외관상으로 C메이커협동조합은 논산 시내 한 건물 2층 귀퉁이에 자리한 확연히 불과하다. 그러나 C메이커협동조합의 목표는 코딩교육이 아니다.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등 공교육 문제의 극복이고, 이를 지역과 같이 해결해 보려는 목적을 가진다.

최근 코딩교육이 의무화 되었지만, 제대로 된 코딩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교사(주체)는 없는 실정이다. C메이커협동조합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청년 등과 같이 교재개발 등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 C메이커협동조합은 논산의 교

육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마리 역할을 한다.

은진마을학교 역시 농촌학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례다. 은진마을학교가 위치한 은진면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인구가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은진마을학교가 활동하면서 지역 초등학교의 취학학생이 늘어나 지역이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은진마을학교는 방과후학교를 비롯 자율활동(컴퓨터 등), 소통(놀이터)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농촌의 초등학교생들에게 방과후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프로그램은 지역 학부모와 지역 어른의 자발적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고 마을이 배움터가 된 은진면은 자녀를 자유롭게 키우기를 원하는 귀농·

귀촌 희망 학부모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었고, 이것이 농촌의 활력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은진마을학교는 귀농 학부모에게 일자리 제공함으로써 지역 정착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경제를 기업활동으로 바라보는 편이다. 맞다, 그렇다. 사회적경제는 경제활동의 중요한 주체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경제의 경제활동만이 아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사회적경제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 우리 지역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발적인 활동이다. 오늘 충남에는 많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

박춘섭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재난본부로 격상 '신종 코로나' 총력 대응

## 임시생활시설 긴급지원 요청

아산 임시생활시설 운영 등  
31일 오전 9시 기해 결정



양승조 지사가 지난 29일 공주의료원을 찾아 관계자에게서 감염병 의료체계를 보고 받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를 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충청남도 방역대책반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번 재난안전본부 구성·운영은 국내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중국 우한 교민이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임시생활시설로 입소함에 따른 것으로, 이날 오전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양승조 지사가 본부장을, 김용찬 행정부지사가 차장을 맡고, 재난안전실장과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이 총괄조정관과 통제관을 각각 맡았다.

실무반은 상황총괄반, 역학조사반, 의료지원관리반, 접촉자관리반, 진단관리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 환경정비반, 사회질서유지반, 홍보반, 협업지원반 등 10개로 구성,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주요 기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난상황 총괄 및 사고수습체계 구축, 도내 시·군 및 군·경 등 유관기관·단체와 공조체계 가동, 의료·자원관리·생활안정지원·구급·환경 및 언론 대응 등이다.

특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보면 총괄팀이 환자 관리와 지역별 대응책 마련, 환자 상담·홍보 등을 수행하고, 역학조사팀이 역학조사, 발생 감시, 환자 사례조사 및 조치 등을 담당한다.

대책반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관심'으로 내려갈 때까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감염병 발생 정보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 감염병 오염 지역 여행객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에 대한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내 대학 유학 중국인,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근로자 등에 대한 본국 방문 이력을 확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이 있는지 살필 계획이다.

도는 또 관광숙박업소와 관광안내소 등에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터미널과 기차역 등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는 소독 등 예방 활동을 펴기로 했다.

연안 여객선 여객 및 승무원에 대해서는 자체 체온 측정을 통해 발열자가 있을 경우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

도록 하고, 보건소에 구급차가 부족할 경우에는 119구급차를 투입한다.

도는 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 발생 시 통역 인력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요양시설에는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도는 이밖에 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증상 발현 시 신고, 교육·행사 개최 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배부 등도 상황 종료 시까지 추진한다.

상황판단회의에서 양승조 지사는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차 감염 발생 등 현재의 상황을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라며 "특히 31일부터 우한 교민 520여명이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는 만큼, 모두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총력 대응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정책과 041-635-4305

종합점검회의서 대통령에 건의  
"지역경제 위축 방지책 필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이 중국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로 지정·운영되는 가운데, 도가 개발원 내 거점소독시설 설치 지원과 이동형 엑스레이 등 장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 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점검회의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지역 내 걱정 있으나, 국가 재난 극복을 위해 아산시민을 비롯한 충남도민은 임시생활시설 지정·운영

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임시생활시설 출입시설 내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지원 ▲방역장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 ▲음압구급차 ▲유전자증폭기·핵산추출기 등 코로나바이러스 진단·분석 장비 ▲마스크·손소독기 등 방역용품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의심증상 발생 시 임시생활시설 내 의료진이 사례검사와 확진검사를 진행하고 ▲의심환자 이송 역시 임시생활시설 내 의료진이 실시하며 ▲의심환자 발생 시에는 국가에서 우선 사용 가능한 입원치료병상을 지정토록 해야 한다며 임시생활시설 관리·운영 지침을 개선해 줄 것도 요청했다.

## '신종 코로나' 대응 현장 점검

양승조 지사, 공주의료원등 방문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되며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달 29일 현장을 찾아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양 지사는 이날 공주의료원과 예산군보건소를 잇따라 방문했다.

선별의료기관인 공주의료원은 감염병 환자 치료가 가능한 6개 음압병

상이 설치돼 있으며, 의료원장 등 10명으로 비상대응팀을 구성해 가동 중이다.

공주의료원에서 양 지사는 응급실과 선별진료소, 음압격리병동 등을 차례로 살펴보고 운영 현황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예산군보건소로 이동해서는 격리진료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대응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충청남도 선별진료소(의료기관)

시군	의료기관명	연락처(24시간연락가능)
계	18 개소	
천안시	단국대학교대학부속병원	041-550-7016 / 041-550-6840
	학교법인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부속천안병원	041-570-3780 / 041-570-2891
	의료법인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041-570-7667 / 041-570-7519
충청남도천안의료원	041-570-7160 / 041-570-7033	
공주시	충청남도공주의료원	041-962-1617 / 010-9312-8237
보령시	보령아산병원	010-5430-2244
아산시	아산충무병원	010-3244-4399
서산시	충청남도서산의료원	041-689-7119
논산시	백제종합병원	041-730-8755
계룡시	건양대학교병원	042-600-9119
당진시	당진종합병원	070-7332-8216
금산군	새금산병원	041-754-8272
부여군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041-837-1200
서천군	서해병원	041-951-8282
청양군	청양군보건의료원	041-940-4515 / 010-5441-5157
홍성군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010-9130-9882 / 010-4424-4852
예산군	의료법인 예당의료재단 예산종합병원	010-6823-8845
태안군	태안군보건의료원	041-671-5319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충청남도 선별진료소(보건소)

시군	보건소명	연락처(24시간가능)
계	16 개소	
천안시	천안시동남구보건소	041-521-5023
	천안시서북구보건소	
공주시	공주시보건소	041-840-8764
보령시	보령시보건소	041-930-5924
아산시	아산시보건소	041-537-3381
서산시	서산시보건소	041-661-6521
논산시	논산시보건소	041-746-8032
계룡시	계룡시보건소	042-840-3522
당진시	당진시보건소	041-360-6116
금산군	금산군보건소	041-750-4333
부여군	부여군보건소	041-830-8719
서천군	서천군보건소	041-950-6717
청양군	청양군보건의료원	041-940-4525
홍성군	홍성군보건소	041-630-9026
예산군	예산군보건소	041-339-6062
태안군	태안군보건의료원	041-671-522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 감염병 예방수칙

**손바닥, 손등 밑  
비누로 꼼꼼하게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감염병 의심될 땐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상담**

\*선별진료소 안내·관할 보건소 및 지역번호 +120

### 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 금지**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발열, 호흡기 증상자(기침, 인후통 등)  
접촉 금지**

**· 기침시 마스크 착용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중국 여행 후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귀국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상담**

\*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 [해외감염병 NOW](#) [예!](#)

# 2020년 혁신도시·미세먼지 등 현안 풀고 약진하는 한 해로

2019년은 충남도가 3대 무상교육 실시,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확정,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유치 확정,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자위 심사소위 통과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매진한 한 해다. 민선 7기 반환점을 도는 2020년, 충남도는 그동안의 성과에 이어 도정 8대 핵심과제를 심화·발전시키고, 미래성장 전략 추진을 위해 또 한 번 도약을 꿈꾼다. 충남도정은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만나 민선 7기 중반기 도정 목표와 과제를 들어봤다.



-지난해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한 말씀.  
“‘낙제점은 아니지 않나’ 또는 ‘1등은 아니지만 상위권은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난해 우리 도는 대통령을 모시고 ‘해양신산업 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발표했고,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 3대 무상교육 시행 등 주요 공약의 전면 시행과 함께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협약을 이끌어냈다. 실질적 성과만 보더라도 좋은 평가 요소가 많다고 생각한다.”

-대표적 도정 성과를 꼽는다면?  
“전국 최초로 행복키움수당을 신설하고 3대 무상교육을 추진했다. 또 3만 여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도 첫 삽을 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 유치(국내 기업 749개사, 외투기업 15개사)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사업 선정,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센터 유치 등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문화관광 인프라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했다. 이제 정부예산 확보 7조원 시대,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전국 1위, 청렴도 평가 상위권 회복 등도 큰 성과이다.”

-목표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것,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이 있나?  
“완벽하게 방점을 찍지 못한 ‘충남 혁신도시 지정 건’과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되지 못한 것이다. 오는 2월, 20대 임시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규제자유특구 선정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콘셉트는 수소에너지 산업(1차), 실버케어(2차)였다. 수소에너지 산업의 경우 안정성의 문제(산업부)로, 실버케어의 경우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및 운영과 앵커기업의 부재로 인한 관련 산업 파급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복지부, 식약처)로 인해 선정이 유보되었다. 오는 6월 중 3차 선정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0년 도정 목표는 무엇인가?  
“올해는 민선 7기 중반부에 돌입하는 시점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매진할 시기이다. 구체적으로 8대 핵심과제의 심화·발전, 지역현안의 해결, 미래성장을 위한 SOC 확충 등을 목표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먼저 8대 핵심과제 심화 및 발전은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확대·전환(만 36개월 미만까지)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사업 대상 확대 ▲75세 이상 도서지역 거주 어르신 여객운임 무료화 등을 통해 지속할 예정이다. 둘째, 지역현안 해결에 집중해 혁신도시 지정, 서해선 서울역 직결,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도정

## 양승조 충남도지사에게 듣다 - 민선7기 중반기 도정 목표와 과제

“  
8대 핵심과제 심화·발전시키고  
SOC 확충해 가시적 성과 창출할 것

“디스플레이 강국” 충남서 실현하고  
소·부·장 경쟁력 높여 日 수출규제 해결

2월 중 충남 일자리 진흥원 출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입증할 할 것

시·군별 기업유치 분포(2019. 12월말 기준)

구분	2019년 누계		
	기업수(개사)	투자금액(억원)	고용인원(명)
합계	749	18	37,363
천안시	261	1	21,286
공주시	27	-	494
보령시	26	-	197
아산시	138	3	2,423
서산시	59	1	5,290
논산시	18	-	387
계룡시	3	-	39
당진시	87	6	2,218
금산군	57	-	1,150
부여군	4	-	-
서천군	10	1	1,066
청양군	4	-	70
홍성군	11	3	377
예산군	39	3	2,358
태안군	5	-	8

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셋째, 미래 성장 기반인 SOC 확충에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1~40년)’을 수립해 권역별 발전전략 및 목표를 확정짓고, 국도 38호 노선연장, 태안~세종 간 신규 고속도로, 청산업 문화철도와 대산항 인입철도, 석문포승 연결철도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 유치에 매진했다. 지난 1년간 성과는?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2019년 한 해 동안 국내 749개사(수도권 이전 18개)를 유치했다. 이를 통해 3조 7363억 원, 1만 449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전망된다. 외자유치의 경우 프랑스 토탈사(5억 달러), 벨기에 유미코어사(1억달러) 등 15개사를 유치해 9억 2200만 달러의 투자유치, 2855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15개사의 외투기업 유치 성과도 큰 실적이다.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도의 노력은?  
“우리 도는 글로벌 기업의 유치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지역(단지형 6개, 개별형 19개)을 확보했다. 그 성과로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집계 결과, 서울·경기 제외한 비수도권 중 외자유치 실적 1위를 기록했다. 앞으로도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해 말 폐지된 국제 감면에 대한 대안으로, 현금 지원 및 외투

외투기업 신고·도착금액 현황 (단위: 천\$)

국가명	신고		도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40	1,653,403	40	1,753,291
네덜란드	2	1,200,000	2	1,365,906
네팔	1	88	1	88
노르웨이	1	26,900	1	22,202
독일	1	86	1	7,954
룩셈부르크	1	22,800	1	22,667
미국	8	43,537	9	27,423
방글라데시	2	111	1	87
버진아일랜드	2	225,825	2	225,825
스위스	1	4,100	0	0
싱가포르	1	53,796	1	53,796
아랍에미리트	1	50,000	0	0
영국	0	0	1	660
우즈베키스탄	1	90	1	90
이집트	1	86	1	85
일본	3	9,261	2	9,924
중국	9	1,514	8	1,037
태국	3	390	3	347
홍콩	2	15,000	5	15,200

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외투기업의 증액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일본 수출 규제 여파를 해결할 충남도의 지원, 육성 정책은?  
“현재 도에서는 경제위기 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대책본부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련 기업들의 실태조사에 이어 ▲시제품 제작 지원 ▲R&D기획 컨설팅 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학연 공동 긴급 R&D(3개사, 업체당 1억원) ▲유망제품 상품경쟁력 강화(4개사, 업체당 25백만원) ▲과제기획 컨설팅(7개사, 업체당 46백만원) ▲기술·경영애로 지원(7개사, 업체당 9백만원) 등도 예정되어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삼성전자와의 디스플레이 투자협약도 이끌어냈다. 그 배경은?  
“삼성의 이번 투자를 통해 ‘QD-디스플레이 사업화’를 통해 프리미엄 제품군의 경쟁력 확보가 용이해졌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캠퍼스를 중심으로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신기술 전환 생산시설 10조원 ▲R&D 3.1조원 등 총 13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국’을 충남에서 실현시키도록 하겠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충남도의 정책과 사업은 무엇인가?  
“이달 중으로 내포신도시에 ‘충청남도 일자리 진흥원’이 출범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일자리진흥원은 도민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신 일자리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도내 고용증진,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유치 문제,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도 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기업과 외투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먼저 국내기업의 경우, ▲수도권 기업 이주 직원 지원 ▲본사이전 시 설비투자금액 10% 지원 ▲신규 고용 시 설비투자금액(최고 7%) 추가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업체당 1억 원) 글로벌 외투기업의 경우, 2018년도 말 폐지된 국제 감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도비 100억 원) 확보 ▲대규모 투자 유치 시 국비 매칭 확보 노력을 지속 중이다. 또 ▲중국 외자유치 전략 체계적 추진(Made in Korea 프리미엄 활용, 2014년 이후 총 14개 중국기업 유치)을 통해 외투기업 40개사 유치라는 민선 7기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

# 해양신산업·서해안 관광벨트...미래 먹거리 기반 다져

## <4면에서 계속>

-혁신도시 지정,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근거가 되는 법안이 지난해 12월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혁신도시법」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방향을 전환한 데 이어, 100만 서명운동을 통한 220만 도민의 염원이 중앙에 전달된 덕분이다. 다만 현재 국회 상황으로 인해 2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혁신도시 지정이 되면 내포신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지?  
 “물론이다. 내포신도시는 그 어떤 공공기관이 당장 입지해도 좋을 만큼 훌륭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도시건설을 위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좋은 여건을 갖췄다.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지역 여건에 부합하면서도 과급력이 큰 공공기관의 이전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내포신도시에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내포신도시의 인프라 문제, 특히 산부인과 및 응급의료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한국중입자 암치료센터와의 MOU를 통해 오는 2022년 문을 열 암 치료 전문 종합병원 등을 시작으로 의료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겠다. 이와 함께 홍성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보완하는 데 집중하겠다. 한편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형마트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착공하여 올 하반기 완공 및 오픈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유통센터에는 농협하나로마트 및 생산자 직판장을 비롯한 고객 편의시설

“  
 ‘혁신도시 지정’ 2월 국회 통과 총력  
 내포신도시 의료·생활 인프라 확충  
 정부 기준보다 높은 미세먼지 규제  
 노후화력 ‘정의로운 전환’ 선도  
 해양자원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  
 관광벨트 새롭게 구축해 나가도록  
 ”

등이 입점해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킬 것이다.”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2020년 계획은?  
 “우리 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금고 지정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탈석탄 금융’을 선도하고 있다. 충남은 산업체 배출량이 전체 비중의 64%를 차지하므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정부 기준보다 20~30% 강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석탄 투자’를 줄여나갈 것이다. 우리 도는 석탄금융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충청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 후 ▲석탄금융 축소외지 ▲재생에너지 투자 현황 등에 대한 배경점수를 신규 적용해 올해 선정 금고 과정에 반영했다.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조기 폐차지원 확대, 건설기계 공해저감 장치 등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미세먼지대책과를 신설했으며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대기관리구역 지정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도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보령화력발전소 1, 2호기의 조기 폐쇄가 확정됐다. 전력 수급, 지역 경제 등 문제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은?

“최근 신규 발전설비 건설로 2018년 기준, 설비 예비율이 27%를 넘는 상황(적정 설비 예비율은 19%)이다. 현재 여유 용량이 8GW 이상이기 때문에, 설비용량 1GW에 불과한 보령 1, 2호기를 조기 폐쇄해도 실제 전력 수급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지역 경제 및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 인력(직접고용 140여 명, 간접고용 180여 명)의 경우 타 발전소로 인사 배치되도록 하고, 간접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분석, 대처해 나가겠다. 발전소 운영기간 단축에 따른 세수 감소는 보령시와 협의를 통해 재정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재정을 보전할 계획이다.”

-해양신산업 발전전략은 어떤 계획인가?  
 “충남만이 가지고 있는 해양자원의 특성을 살려 ▲해양생태복원 ▲해양치유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관광 4개 분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해양신산업은 2030년까지 일자리 10만개, 기업 1,000개, 생산유발효과 25조원, 관광객 연 3천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부남호 역간척과 서산 웰빙특구 육성을 통해 해양생태를 복원하고, 충남의 해양·산림 자원을 엮어 ‘충남형 치유벨트’를 구축해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서천지역을 중심으로 해양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유류피해기념관 및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교양장 등 생태체험관광 기반을 중심

으로 해양레저관광을 선도한다는 목표다. 이버 전략은 지난해 10월 10일 대통령남게서 함께 해주시는 경제투어를 통해 발표하고, 올해 정부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돼 추진력을 확보했다. 또 지난달 19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이 예타 조사대상 사업에 최종 선정됨으로써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산안면대교가 지난 연말 개통했고 오는 21년 해저터널도 완공 예정이다. 서해 관광, 어떻게 발전시켜 갈 계획인가?  
 “지난해 12월 26일 원산안면대교가 개통했다. 우리 도는 이를 계기로 원산도·안면도 일원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관광 발전 계획을 크게 3개로 나눠 시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사업에 도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서해안 신 관광벨트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 원산안면대교의 개통이 서해안 신 관광벨트의 완성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도민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충남도정은 착실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가운데 여러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도민이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한 2020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의 위기 앞에서 지금껏 추진해 온 8대 핵심과제는 심화, 발전시키면서 가시적인 도정 성과창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남의 장기과제를 더욱 세밀하게 살피면서 미래 10년을 좌우할 전략과제 추진에 전념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원만히 성취하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정리/손유진 syj0319@korea.kr

## 4502명의 도민과 함께 충남 미래발전 밑그림 마련

### 민선7기 2년차 시·군 방문 결산

충남도는 지난해 7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민선7기 2년차 시·군 방문을 진행했다. 시·군 방문이 진행되는 동안 15개 시·군에서 총 4502명의 도민이 참여해 지역 현안사항 등 건의사항 328건을 개선하며 충남의 미래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쏙쏙 내놓았다.



시군별 정책협약 과제 현황 ※체결일 순

시·군명	과제명	사업내용
부여군	바이오소재 클러스터 구축	유전자원 국산화지원 기반 구축, 사업화 지원 등
아산시	전기 상용차 부품산업 육성	차량 및 부품 설계 금형제작, 시뮬레이션, 차체 조립 등
공주시	세계역사문화도시 중부권 문화수도 육성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백제문화재 활성화
보령시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부품산업단지 육성, 튜닝지원센터 및 특화산업단지 조성
서산시	첨단화학 스마트 분석지원 센터 구축	분석서비스, 시험인증, 신뢰성 평가, 기술지원 서비스 등
예산군	바이오 융복합 허브 조성	바이오헬스케어, 건강보조식품, 의약품·의료기기 등 업종
논산시	탐정호 복합휴양 관광단지 조성	관광자원 개발, 기반시설 조성, 복합휴양 관광단지 조성 등
태안군	서해안 해양생태관광 거점 도시 조성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부남호 역간척 연장
청양군	청양형 첨단 복합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협력, 농촌형 스마트타운 조성
계룡시	대한민국 국방의 메카, 인구 7만 자족도시	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 국방 관련기관 공공기관 유치
당진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혁신벨트 조성	융복합 거점지구 조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등
서천군	장항 오염정화토지 환경테마지구 조성	오염정화토지 전담대응팀(TF) 구성, 활용방안 공동 수립
금산군	인삼·약초 세계명품화 육성	인삼세계화, 세계중요농업유산 홍보관, 인삼지원센터 구축
천안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화	신성장 제조융합 혁신 거점 육성, 최첨단 지능형 도시
홍성군	대한민국 항일운동 성지 육성	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행사, 김좌진 장군 선양사업 등

### 150일간 15개 시·군 발로 뛰며

### 시·군의 ‘든든한 동반자’ 재확인

### 쌍방향 대화로 문턱 낮추고

### 주민생활 불편에 귀 기울여

충남도는 지난 연말 도청 문예회관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지방정부회의’를 열고 민선 7기 2년차 시·군 방문 결산보고를 진행했다.

2년차 시·군 방문이 예년과 달라진 점은 단 순히 기관 방문과 참석자와의 대화를 넘어 도와 시·군,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쌍방향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있다. 특히 각 시·군의 현안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도지사과 시장·군수 간 정책협약을 통해 미래발전 전략을 함께 그렸다는 데 의미가 깊다. 충남도는 이번 방문을 통해 각 시·군에서 가장 원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미래발전 과제 15건(표 참조)에 대해 정책협약을 맺고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구체적 정책협약 과제 중에는 ▲산업경제:

바이오소재 클러스터 구축 등 8건 ▲문화관광: 세계역사문화도시 중부권 문화수도 육성 등 5건 ▲기후환경: 오염정화토지 환경테마지구 조성 ▲농어업: 인삼·약초 세계 명품화 육성 등이 포함됐다. 충남도는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

부권 지역발전을 위해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저발전 8개 시·군(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에 대하여 강력한 성장동력 사업 발굴 및 지원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13년간(’08~’20년)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198개 지구에 총 1조 875억 원을 투입하였고, 현재 제1단계 제3기(’18~’20) 사업이 진행 중이다. 제2단계(’21~’30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시·군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 지역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코자 대상 시·군(8개→9개, 예산군 추가) 및 예산지원 규모(연 800억→1,350억)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에 집중코자 도 직접사업, 시·군 공모사업, 시·군 자율사업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추진 방향을 정립 중이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152명의 패널과 발표자는 총 6개 분야 113건에 대한 논의 주제를 설정하고 주민 생활 불편 및 지역현안을 위한 건의는 물론, 각 시·군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도는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체계 마련 등 보건복지 분야 125건,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조성 등 문화관광 53건 등 총 328건의 도민이 야기를 수렴하고, 시스템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향후 시·군과 맺은 정책협약 과제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해 도정 핵심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라며, “도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치행정과 041-635-3593



# 노후화력 조기 폐쇄 ‘후폭풍’ 막는다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TF’ 가동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모색”

국내 대표 노후 석탄화력발전인 보령화력 1·2호기가 올해 12월 당초보다 2년 앞당겨 조기 폐쇄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도는 노후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를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TF팀’을 구성, 이달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에너지전환 TF는 일자리, 지역경제, 인구 등 노후 석탄화력 폐쇄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주민주도형 대안 발전 모델 마련을 위해 꾸렸다.

에너지전환 TF의 주요 기능은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 및 대응방안 제도와 종합대책 수립 ▲지역경제 및 일자리 영향 시나리오 분석 ▲일자리 창출 및 전직 전환을 위한 노사민정 사회적 실천협약 등 추진 ▲지역경제 및 일자리 영향 분석 ▲정책토론회 및 보고회 등 정책 현안 대응 등이다.



지난해 12월 9일 예산에서 열린 ‘충남노후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원회 승리보고대회’에 참석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관계자들이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확정 결과를 자축하고 있다.

이달 에너지전환 TF 첫 회의를 시작으로, 3월부터 10월까지는 시·군별 포럼을 통해 석탄화력 폐쇄 지역 대안 발전 모델 및 대책 공론화·제도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보령화력 1·2호기가 35년 이상 밝혀온 불을 영구적으로 끄게 되는 12월에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대안을 도출한 뒤,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이 대안을 제안하며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석탄화력은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으나, 이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은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라며 “에너지전환 TF는 주민주도형 대안 발전 모델을 마련하고, 고용안정 관련 실천협약 체결을 주도하며 충남형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과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과 041-635-3456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전액 지원해 농가 부담 줄인다

### 읍·면·동서 연중 수시 신청

충남도가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도는 ‘2020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지침 및 지원계획을 마련, 올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16억 2820만 원을 도내 친환경 농가에 지원한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드는 수수료와 토양검정, 수질 및 잔류농약검사 등 인증 실비를 지원, 농가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은 각 시·군 및 읍·면·동을 통해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해서는 건

당 약 8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농가에서는 약 40%를 부담해 왔다. 도가 지난해부터 인증 비용 전액을 지원키로 한 것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 수요가 늘어나고 안전한 먹거리 선호경향이 뚜렷해진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올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생산단계 잔류농약검사’를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인증 획득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전국 친환경농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식량원예과 041-635-2523



장애인 생활체육지원도 ‘전국 1위’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평가한 2019년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에서 99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충남도는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사업 전국최초, 5년 연속 A등급 달성 ▲장애인체육회 시·군 지부 단독 설립 전국 1위(15곳, 100.0%) 등에서 우수 점수를 획득하여 전년 대비 3.1점이 상승된 99점으로 충남도가 생활체육 분야에서 전국 1인자임을 입증했다. ●충남장애인체육회 041-635-0087

# 34주 조산도 안전하게... 든든한 ‘임산부119’

### 작년 총 687건 이송, 분만 5건 올해 도내 모든 임산부로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뒷받침

지난해 충남도의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를 통한 이송 건수가 7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생명 지킴이’인 충남 119구급대가 새 생명 탄생을 돕고, 임산부와 영아의 병원 진료를 위한 ‘발’이 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뒷받침하고 있다.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는 분만 가능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농어촌 지역 임산부를 보호하고,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실시를 통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8년 12월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출산 압박 또는 조산 우려가 있는 임산부나 출산 후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및 영아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위급 임산부에 대해서는 응급 처치를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대상은 지난해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14개 시·군 읍·면 지역 거주 임산부(4,342명)에서 올해 도내 임산부 전체 1만 1204명과 생후 1년 미만 영아로 확대했다.

지난해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 이송 건수는 총 687건으로 집계됐다. 구급 이송 유형별로는 영아 이송이 385건으로 가장 많고, 복통 110건, 구토·부상 등 기타 63건, 하혈 48건, 진통이 4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송 중 구급차 내

출산은 5건으로 집계됐다.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는 임산부 또는 보호자가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청하거나,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출산 및 출산 전·후, 응급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다.

도 소방본부는 이 서비스를 위해 119구급대에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했다. 지난해 3월과 11월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초청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분만에 대비해 멸균 분만세트를 모든 119구급차에 배치했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임산부를 위해서는 119종합상황실에 동시통역 시스템도 구축했다.

●119광역기동단 041-635-5733

# ‘서해선 서울 직결’ 최적대안 도·전문가 검토 위해 머리 맞대

도는 지난달 31일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을 위한 ‘정책자문단 자문회의’ 및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서해선 복선전철의 서울 직결 대안 노선을 발굴 및 장단점을 분석해 정부 설득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대안사업에 대한 장단점이 면밀하게 분석된 만큼 사업 추진 가능성, 유리한 노선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제안에 나왔다. 이에 도는 향후 최적 대안노선에 대한 수요와 편익, 경제성(B/C) 등을 분석하고, 정부의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해선은 흥성에서 경기 송산까지 90.01km 구간으로 현재 60%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도로철도항공과 041-635-2835

# 이주여성의 삶을 돌아보게 해 준 놀이

### 세상놀이 한마당 ‘따로 또 같이’

### ②꼭거(Cuốpcờ) 양편으로 나눠 깃발 빼는 놀이 골목 아이들이 달아오른다

꼭거(Cuốpcờ)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골목놀이 중 하나다. ‘빼앗다’라는 의미의 꼭(Cuốp)과 ‘깃발’이라는 의미의 거(cờ)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깃발을 빼앗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 놀이다. 유아부터 어른까지 1부터 10까지의 숫자만 알고, 두 발로 뒹박질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놀이.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겐 값진 사연이 있는 귀한 놀이다.

어느 날 내게 보내온 한 통의 메일. 베트남의 전래놀이를 주제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상이라는 설명과 함께 한 지인이 내게 건네준 선물이었다.

나는 밤새 그 영상 속으로 빠져들었다. 비록 영상 속의 언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몸짓과 표정을 통해 대부분의 놀이 방법은 알아챌 수 있었다. 그러다 유독 눈길을 끄는 영상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꼭거였다.

한 사내가 한 무리의 개구진 아이들과 골목으로 들어선다. 카메라를 향해 무언가를 설명하던 그는 마지막에 ‘꼭거’를 외친다.

화면이 바뀌고 그 사내는 아이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 골목의 양편에 한 줄로 서게 한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신발을 벗어 출발선을 표시한다. 사내는 양편의 중앙에 원 하나를 그리고 그 안에 앞이 무성한 나뭇가지 하나를 들여 놓는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출발선 앞에서 두 눈을 반짝이며 신호를 기다린다. 사내의 외침에(그것은 숫자를 의미) 아이들은 양편

에서 한 명씩 뛰어 나와 중앙의 나뭇가지를 향해 내달린다.

거기까지는 예측 가능한 놀이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내달리던 아이들은 정작 중앙에 다다라서는 서로를 마주 보고 희죽거린다. 그리고 서로의 허점을 엿보며 원 주위를 맴도는 아이들. 돌연 둘 중의 한 아이가 나뭇가지를 채가고 나머지 한 아이는 그 뒤를 쫓는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양편 모두가 환호한다.

쫓던 자와 쫓기던 자, 모두가 웃는다. 헛갈리기 시작했다. 누가 이긴 거지? 그렇게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보며 그 밤을 지새웠다.

날이 새고도 그의 묘문은 풀리지 않았다. 참다못한 나는 베트남이 친정인 한 이주여성분을 찾아가 해당 영상을 보여 주었다. 그러자 이내 반색을 하며 “이거 꼭거예요. 저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정말 재미나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내민 베트남



베트남 골목놀이 꼭거의 놀이장면

전래놀이 책에서 꼭거를 찾아, 그 안에 문장들을 해석해 주던 선생님. 그제서야 나의 목은 체증이 내려갔다. 그렇게 나는 물어 물어 이주여성분들의 그때 그 시절의 놀이들을 더해 갔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들의 그때 그 시절을 삶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나저나 꼭거는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냐고? 그것은 QR코드 안에 담았다.

영상은 어떻게 볼 수 있냐고? 그것은 스마트폰에 QR코드 어플 하나만 깔거나 스마트폰 카메라도 비춰보면 된다.

/강동완 세상놀이연구소 소장





# 올해부터 어린이집도 ‘친환경 급식’ 제공

### 먹거리 안전 위해 1624억 투입 33만 명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충남도가 올해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급식 식품비 1354억 원과 친환경 식품비 279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부터는 어린이집 원아들에게도 친환경급식 지원이 가능해져 급식 질 향상은 물론,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이 기대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계획’을 확정, 신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도내 15개 시·군 어린이집

과 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학생 33만 3000여명(3111개 학교)이다. 연간 급식일수는 1일 1식을 기준으로 단설·사립유치원 220일, 병설유치원은 190일이다. 단가는 1740원이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무상급식은 1일 1식 기준 190일이며, 식품단가는 2266원~3483원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식재료는 1일 1식 기준 최대 220일까지 지원하며, 290원에서 570원을 단가로 책정했다.

도는 올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과 원아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이 지원을 통해 도

내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양질의 학교급식, 친환경농가의 판로 확보 등이 기대된다.

추옥 도 농림축산국장은 “이번 지원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 우수 식품을 공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국·공립, 사립 등 학교유형과 관계없이 1227개교 26만 7207명에게 1542억 원을 들여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 바 있다. 올바른 식습관 및 지역식재료 공급확대를 위해서도 지역생산 고추장·된장·국간장 193톤을 공급하기도 했다.

●농식품유통과 041-635-4167

# 여성·아동시설 종사자 임금 개선

###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174명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634명 임금·처우 개선으로 차별 없애

충남도가 2년 연속 도내 여성 권익 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그룹홈·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책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달 16일 ‘2020년도 충청남도 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 수준으로 확정

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가 올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2종의 임금테이블을 토대로 경력별 산정한 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시설의 재정 부담을 완화코자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10호봉까지 경력을 재산정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올해 1월 기준 ▲광역 2개소 ▲가정폭력 16개소 ▲성폭력 10개소 ▲성매매 3개소 ▲이주여성 2개소 등 총 33개소 시설 종사자 174명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그룹홈·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지침’도 마련

해 이들 시설의 종사자 급여 수준을 복지부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맞추는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근무시설과 종사자별 직위, 경력을 반영한 1~10단계 자체 호봉제를 적용하며 경력은 현 시설 근무 경력에 지자체로부터 경력증명서를 통해 인정받은 경력 등을 반영, 결정한다. 호봉은 확정된 경력을 ‘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하고, 종사자 경력 및 승급은 시스템으로 등록·관리한다. 이와 별개로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경력별로 월 9~15만원씩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는 현행유지해 별도 지원한다.

●여성가족정책관·출산보육정책과 041-635-4993-4546

### 반값 등록금에 도립대 인기 ‘쑥’ 5년 연속 동결, 경쟁률 64:1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5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했다. 2020학년도 등록금은 인문사회 계열은 학기당 106만 5500원, 공학자연 계열 학기당 129만 2500원으로, 전국 전문대 평균 등록금(579만 원)의 42% 수준이다.

이처럼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충남도립대의 선전은 2020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에서도 빛을 발했다. 신입생 모집 결과 평균 6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충청권 대학 경쟁률 3위를 사수한 것.

모집결과에 따르면 전기전자공학과가 19대1로 최고 높은 인기를 끌었으며, 건축인테리어학과가 1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정시 경쟁률은 대전·충청·세종지역 16개 전문대학 가

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전국 도립대학교 가운데서는 1위다.

정시 경쟁률이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 배경으로는 낮은 등록금과 안정적인 교육 환경, 충남을 대표하는 공립대로서 성장 잠재력 등이 거론된다.

특히 2019년 공무원 공채 68명 배출 및 대기업 3년간 80명 입사 등 성과를 보이며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명성을 높여왔다.

●충남도립대학교 041-635-6612

# 우리 손주 사우는 무뚝구리어

### 이명재의 충청말 이야기 (31)

### 무뚝배기·뚝새의 다른 말 조금씩 다른 충청말의 세계

새해가 됐다고 처가에 다녀온 아내가 나를 보고 물었다.

“자기 말야. 무뚝구리가 뭘 말인지 알아?”

“무뚝구리?”

“응, 무뚝구리. 우리 엄마가 잘 쓰는 말인데.”

“물러. 통 못 들어본 말인데.”

처가에 무뚝구리가 왔었다. 장모님의 손녀딸이 작년에 결혼했다. 손주 사위는 경상도 대구 사내였다. 심성이 바르고 건실한 데다 덩치가 산만하여 보기만 해도 듣직했다. 그런데 말수가 적었다. 쳐다보면 씩 웃고, 말을 건네면 기껏 한다는 말이 ‘예, 아니오, 괜찮아요’ 뭐 그런 정도였다. 처음엔 처가가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도 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으니 재미가 없다. 식구들 바쁜 중에도 말 없이 쳐다만 본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 일을 같이 하자기도 어렵고 혼자 반동거리고 있으라기도 싱겁다. 같이 놀기도 어렵고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자니 그저 멋쩍다. 그러니 어머니와 올케가 얼마나 답답하겠나고 아내가 내게 푸념이다.

‘무뚝구리’는 ‘말이 없고 행실이 부드럽지 아니하여 정을 나누기 어려운 사람’을 이르는 충청말이다. 비슷한 충청말에는 ‘무뚝배기’와 ‘뚝새’가 있다. ‘무뚝뚝이’란 표준어가 충청도를 뒤흔은 지 오래, 당연히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들은 아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말이 있다. 그 말들을 다 아는 사람은 없다. 같은 충청도 사람들이라도 쓰는 말은 조금씩 다르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

도 하고, 같은 말이라도 여러 개가 함께 쓰이는 경우도 많다. 누구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누구는 어릴 적 충청말을 간직하며 살아간다.

나는 ‘무뚝배기’니 ‘뚝새’니 하는 말을 들으며 자랐지만 ‘무뚝구리’는 처음 들었다. 그 귀한 말을 정리하며 충청말이 마당 가득 휘날리는 처가를 생각한다.

집안에 새 사위만 남겨두고 처가 식구들은 밖에서 일을 했다. 그때 이웃에 사는 큰어머니가 마실을 왔단다. 자연스레 새 사위 얘기가 오가고, 장모님과 처남댁은 큰어머니께 이렇게 떠들었다.

“우리 손주사위는 무뚝구리어. 사람은 쫄디 말이 너머 없어 속이 터진다니.”

“그류, 무뚝구리도 그런 무뚝구리가 없유.”



이명재  
시인·충청언어연구소

# 서해의 황금 어장터 녹도

### 충남이 품은 섬 이야기

### ②보령 녹도

### 시슴처럼 생겼다하여 붙은 이름 봄철 까나리, 여름철 멸치잡이 자발적으로 금주령 시행도

보령시 오천면 녹도는 섬의 모양이 시슴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녹도라 불린다. 보령 대천 항에서 25km, 해안선 길이 4km, 크기는 0.89km<sup>2</sup>의 조그마한 섬이다. 작은 섬에 한 때는 120여 가구, 300여 명의 비교적 많은 주민이 살았는데, 지금은 9가구 180여 명만이 거주하고 있다.

녹도는 먼 바다에 위치한 섬이지만 어업 활동은 매우 활발하다. 서해어장의 전진기지였던 녹도는 한때 충남에서 외연도와 함께 어업이 번성했던 섬이었다. 주변 바다는 제주 난류가 북상하면서 봄에는 까나리와 새우, 여름에는 멸치잡이 어장이 성행한 곳이다.

주민들의 협동심이 강하고 단결이 잘 되는 마을로도 유명하다. 녹도 주민들 간에는 위계질서도 뚜렷하다. 국내 유일하게 금주령이 내려진 섬이기도 하다. 금주령은 50여 년 전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법이다.

과거 어업이 성행할 땐 경기가 좋아서 술집이 많았다. 순전히 밀주였는데 술에 취하여 싸움질을 하고 노상방뇨도 하고, 노인들에게 대드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 청장년들에게 녹도 안에서 술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애경사 등 꼭 술이 필요할 때면 대천에서

사왔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뒤 몰래 술 파는 행위가 네 집에서 적발돼 보관된 138상자를 시가로 배상해 집집마다 분배해 나눠주는 등 2차 금주령을 실시했다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1960년대까지 뚝단배에 해산물을 싣고 대천에 나가려면 여간 고생이 아니었다. 바람이 불면 풍선에 돛을 달고 갔지만, 역풍을 만난다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교대로 노를 저어서 5시간 정도 후에 겨우 삼시도 근처에 다다른다.

삼시도에서 하루를 보내고 가는 경우도 많았다. 다음날 다시 대천에 가서 시장에서 일을 보고서야 다시 돌아왔으니, 이들의 고달픈 삶은 계속되다가 동력선이 나오면서 한결 짐을 덜 수 있었다.

당시는 객선이 다니지 않아서 대천 장을 보려면 노전배가 돛을 달고 다녔다. 해산물을 가득 싣고서 장에 가서 판매하고, 올 때는 생필품을 가득 사들고 오는데 떨어져 고생이 말이지 아니었다는 것이다.

물때와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다니다, 한 번은 장을 보고 녹도로 오는 길에 역풍이 불었다. 그래서 현재의 대천항으로 일시 피난을 갔다가 다음날 새벽 향해 중 삼시도 근처 용도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녹도 주민 10명이 사망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녹도는 일제강점기 의병활동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니, 외딴 섬에서 무력항쟁을 계속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할 대목이다.

/이재인 목포대학교 연구원



녹도 전경

# ‘3·1운동 백년의 집’ 아이디어 공모

### 공간·단지·콘텐츠 분야 등 13일까지 공모전 신청 접수

충남도가 ‘(가칭)3·1운동 충남 백년의 집 건립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도가 주최하고,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가칭)3·1운동 충남 백년의 집’을 체험 위주의 생생한 교육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가칭)3·1운동 충남 백년의 집’은 지난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도와 독립기념관이 독립기념관 경내 공동으로 건립을 추진 중인 교육시설이다. 공모 분야는 ▲다목적활용 방안 등 공간 계획 ‘백가지 상상’ ▲배치 및 외부 공간 디자인 등 단지 계획 ‘백

년의 자리 상상’ ▲전시실 콘텐츠 및 디자인 등 콘텐츠 ‘미래 백년 상상’ 등이다.

공간 계획 분야의 경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단지 계획 및 콘텐츠 분야는 도시계획·건축·조경, 전시·산업·환경·실내건축 디자인 등 관련 전공자·종사자 등만 가능하다.

공모 신청 접수는 오는 13일까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작품은 부문별 제출 규격에 따라 이달 21일까지 응모하면 된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누리집(https://www.cih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정책과 041-635-3820

# 충남형으로 튼실히 다진 2019년

## 한눈에 보는 2019 충청남도 성과

충남도가 민선7기 반환점을 도는 내년도 2020년, 도정 8대 핵심과제를 심화·발전시키고, 미래성장 전략 추진에 집중한다. 그동안 도민과 함께 이룬 올해 성과로는 △행복키움수당 확대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대 무상교육 실시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더 행복한 주택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여성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2년연속 1위 달성을 비롯해 △청렴도 상위권 회복 △국내 기업 692개사 3조 6746억 원 유치(11월 말 기준) △글로벌 외투기업 15개사 9억 2200만 달러 유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추진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확정 △혁신도시시법 개정 공포에 따른 지역 인재 채용 역차별 해소 등 혁혁한 성과를 올렸다.

### 충청남도 전국 1위 수상실적(2019년)

- 2019년 정부합동평가 전국 1위
-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
- 2019년 하반기 신속집행 중간평가
-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 제36회 지역정보화연구과제 발표대회
- 국가 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 생물테러 대비 대응 "최우수기관"
- 매개체 감시 및 방역관리 "최우수기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종합대상"
- 국제교류 우수 단체표창(장관표창)
- 新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4개년 실천계획 수립 평가
- 문화재 정비 개선사업 "우수기관" 수상
- 2019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지역단위 부문)
-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증류주 부문)
-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 전국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 산림보호분야 우수기관
-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 "최우수" (호두, 대추)
- 산림복지분야 우수사례 "대상"
- 제17회전국축산물품질평가 한우부문 "대상"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 환경교육발전 유공
- 정보화연구과제 발표대회(대통령상)
  - 위치기반 증강현실(AR) 플랫폼 구축사업
- 디지털지적(지적재조사) 구축사업 "최우수"
- 병술만자율관리공동체 전국 최우수공동체 선정
- 漁(어)울림마을 콘테스트 "대상"
- 태안 고남7리 마을
- 귀어귀촌 우수사례 여촌계부문 "최우수 여촌계" 표창
  - 홍성 공리여촌계
- 2018년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최우수"
- 제32회 의용소방대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 (의용소방대원 장비착용&릴레이/단체전 1위)
- 제2회 국민안전 발명 챌린지(대상, 동상)
- 2019년 자체감사활동(광역자치단체부문 "A"등급)
-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광역자치단체부문 "대상"
- 2019년 청소년정책 평가 "최우수상"
- ICT기반 스마트팜교육사업 우수기관(서산)
- 한국4-H대상 청년부문 "대상"

<p>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p> <p>2018 2019</p> <p><b>1</b> 전국 1위 달성</p>	<p>공공기관 청렴도</p> <p><b>2</b> 종합 2등급 달성</p>	<p>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예타 조사대상 사업 확정</p> <p>충남형 해양신산업 쾌속</p>
<p>충남 혁신도시 지정</p> <p><b>국가균형발전 특별법</b></p> <p>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p> <p>지역인재 채용 확대 <b>51</b> 혁신도시법 국회 통과 2기</p>	<p>2019년 6조 3,863억원 대비 11.9% 증가</p> <p><b>정부예산 확보</b></p> <p>7조원 시대 개막 7조 1,481억 원</p>	<p>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협약 체결</p> <p>명실상부한 '디스플레이메카 충남' 사상최대 <b>13.1</b>조원 투자협약</p>
<p>어르신 버스비무료화</p> <p>2019년 7월부터</p> <p>78세이상 어르신의 대중교통이용권 확대</p>	<p>법안국회 통과</p> <p><b>고등학교 무상교육</b></p> <p>충청남도 전국처음 실시 선도시책</p>	<p><b>해양신산업육성 기반확립</b></p> <p>해양바이오, 해양생태복원(역간척), 해양치유, 해양레저관광</p>
<p><b>군 소음법 국회 통과</b></p> <p>5개 시·군 약 36만여명 수혜</p>	<p>보령화력 발전소</p> <p><b>1·2 호기 조기 폐쇄 확정</b> 2020년 12월말</p>	<p>전국 최초 장애인 비장애인 여자 태권도팀 창단, 시각장애인 남녀 골볼팀 창단 (2019.1)</p> <p><b>장애인스포츠 참여 확대</b></p>
<p>유관순 열사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p> <p><b>3</b>등급 &gt;&gt; <b>1</b>등급</p>	<p>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p> <p><b>투자 양해각서 체결</b></p>	<p>국내외 우량기업 유치와 고용을 <b>상위권(전국3위) 유지</b></p> <p>국내기업 : 692개사 3조 6,746억 원 글로벌 외투기업 : 15개사 9억 2,200만 불</p>





△행복키움수당 만 36개월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고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 운임 무료화하는 등 보편적 복지가 커진다 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과 △재가 말기암 환자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이 펼쳐지며,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행사 △충남 VR·AR 제작거점센터 구축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및 부남호 역간척 국가사업화, △서해안권 및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충남형 해양치유 플랫폼 구축 등이 펼쳐진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향해 더욱 힘차게 달려 나아가야만 한다"며 "대한민국을 이끌 전략과제 추진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 민선 7기 성과와 이를 심화 발전시킬 '2020플랜'을 담았다. /도정신문팀

# 대한민국 주도하는 충남도정 2020

## 2020년 충청남도 8대 핵심과제

### 민선7기 충남도 8대 핵심과제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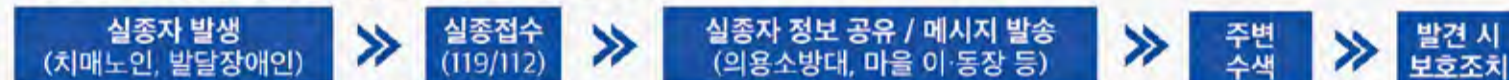
####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 행복키움수당 24개월 미만 → 올 11월부터 만 3세미만 확대(월10만원)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친환경무상급식 및 차별 없는 보육·교육환경 조성
-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지원 강화 위해 친환경 식재료 지원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카시트 안전벨트 조절기 지원)



####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 치매어르신 및 발달장애인 실종자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에 이어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운임 무료 시행(5개 시군(보령·서산·당진·홍성·태안) 21개 도서)
- 경로당 화장실 대·소변기에 안전손잡이 설치



#### 더불어 잘 사는 충남

-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사업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까지 확대
- 도내 전 주택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보급
- 경력단절여성에 충남형 직업능력훈련 개발 및 보급
-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협약 모델 도입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공급
- 도민안전보험 보장혜택 확대
- 양극화 개선을 위한 충남형 진단체계 구축 등
- 지역혁신 및 공유경제플랫폼, 충남혁신사회 조성



#### 기업하기 좋은 충남

-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지원 및 성장단계별 지원
- 충남형 기업체 청년채용 지원
- 해외통상사무소 개소(베트남 하노이, 인도 뉴델리)
- (신남방) ASEAN 및 인도 지방정부와 지역외교 확대
-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20년 2월 출범)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 충남 지역화폐발행 활성화 : 농어민수당 지역화폐지급 등
- (신북방)중국 및 러시아 지방정부와 새로운 국제협력모델 구축
-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12월 준공



####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강소특구로 확대 지정
-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육성) 바이오경제시대 국가산업 거점화
- 이차전지 시험·인증기반시설 유치
- 밀원수 특화단지 22년까지 600ha 조성
-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한 지속 성장
- (첨단화학 스마트 분석지원센터 구축) 정밀화학산업 기반 구축
-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캠핑카, 푸드트럭 등 전략적 육성
- 내포 혁신창업공간 조성으로 전략적 창업공간 인프라 조성



####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 공연, 다큐멘터리 방영 등 재조명
- 65세 이상 어르신 중 매주 5만보 이상 달성자에 상품권 지급
-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으로 22개사 육성
-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운영으로 기업 유치 및 지원사업 본격화
-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 및 국제규모 서핑대회 유치
- 도립미술관 국내외 유명건축가 초빙 설계공모
- 어르신·중장년층 대상 체육시설 확대
- 충남VR·AR제작거점센터 구축으로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 2020계통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개최



####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 노후석탄화력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주민 상생형 사업모델 발굴
-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 감시 강화와 환경일자리 창출
- 하수도 보급률 향상(76.9% → '20년까지 82%)
- 해양쓰레기 수거 수거전문 인력확충
- 송전선 지중화율 향상 및 입법화로 지중화 적극 확대
- 상수도 보급률 향상(94.6% → '20년까지 98.1%)
- 전국 최초 수도 통합관리('25년 통합시 '30년까지 1,975억 절감)
- 부남호 역간척 국가사업화



####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

- 서해안권 및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 장항연소주변 오염정화토지 국제적 수준의 생태복원 모델로 조성
-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건립('20년 착공)
-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 범위 확대
- '2024 안전인삼 프로젝트' 본격 추진 : 2020년 안전인삼 원년의 해로 지정
-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 : '전국 최초, 무장애 자연휴양림'
- 도시재생 뉴딜사업 : '20년 6곳 선정목표
-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설치, 국도38호 노선 연장 및 가로림만 교량건설 등 국가사업화
- 삼교천권역종합발전전략수립 ※(대상지역) 천안, 아산, 당진, 예산, 홍성, 청양
-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중입자암치료센터) 건립('20년 착공)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경영안정대책
- 농작업지원단 65세 이상으로 육성·운영 확대
- 아산호~삼교호~대호호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20년 12월 준공
- 충남형 해양치유 플랫폼 구축 : 해양치유 + 산림치유 결합 모델 제시



문화행사



2020 신년음악회(천안)

■일시 : 2월 13일  
 ■구모영의 지휘아래 천안시립교향악단이 2020년 첫 기획공연을 준비했다. 다양한 레퍼토리의 클래식 소품과 색소폰·피아노 협주곡을 비롯해 뮤지컬, 대중음악 등도 선보인다. 박해미, 블렌드 최, 한상일, 천안시립풍물단이 함께한다.  
 ■장소 : 천안시청 봉서홀  
 ■문의 : 1555-1346



칠갑산얼음분수축제

■일시 : 2월 16일  
 ■“동화나라 친구들 모여라~!“ 커다란 얼음분수가 만들어놓은 알프스 성에 동화나라 캐릭터들이 모두 모여 함께 하는 칠갑산 겨울왕국. 칠갑산에 까만 아들이 내리면 반짝반짝 은하수 별빛 아래 화려한 옷으로 같이입는 야간개장.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연인들에게는 겨울철 데이트 코스로 안성맞춤. 5분 거리에는 1박2일 촬영지로 유명한 전국 최장의 천장호 출렁다리. 겨울엔 칠갑산겨울왕국! 칠갑산 얼음분수축제가 초대한다.  
 ■장소 : 청양 알프스마을 축제장 일원  
 ■문의 : 041-942-0797~8

홍성 남당항 새조개축제

■일시 : 2월 29일  
 ■2004년부터 남당항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홍성군이 후원하여 개최하고 있는 '홍성 남당항 새조개축제'는 회와



매콤한 양념무침, 사부사부 등 새조개를 재료로 한 요리 시식회 코너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가 함께 열린다. 풍물놀이와 공연, 노래자랑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새조개는 조개의 속살이 새의 부리모양과 닮아 새조개로 불리며 크기는 애들의 주먹만하고 겉은 피조개와 비슷하다.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잡히는 것이 가장 맛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소 :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213  
 ■문의 : 010-4241-1399



논산 딸기축제

■일시 : 2월 19일~2월 23일  
 ■50여년의 재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논산딸기는 기름진 논산평야의 비옥한 토양과 맑은 물, 풍부한 일조량 등 천혜의 자연조건 속에서 천적과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되어 맛과 향이 우수하다. 지난 2012~13년에는 전국 딸기 품질평가회에서 최우수 품질상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논산딸기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논산청정 딸기 산업특구가 우수특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특히 논산딸기축제는 대한민국명가명품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며 충청남도 대표 문화축제로서 더욱 많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장소 : 논산천 둔치  
 ■문의 : 041-746-8388~9



유키구라모토 리사이틀

■일시 : 2월 26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감성 피아니스트 유키구라모토가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올해 첫 리사이틀을 갖는다. 유키구라모토는 이번 무대에서 콰르텟과의 앙상블을 통해 'Lake Louis' 등 그의 대표곡들을 선보인다. 솔로 피아노 뿐만 아니라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등 각각의 악기가 내는 독특한 음색을 느낄 수 있다.  
 ■장소 : 충남도청 문예회관  
 ■문의 : 1644-9289



장일범과 함께하는 11시 콘서트

■일시 : 2월 26일  
 ■손다박 만한 하모니카로 세계대화를 석권한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이 천안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박종성은 4년마다 열려 '하모니카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독일세계하모니카대회에서 자작곡으로 한국인 최초 트래플로 솔로 부문 1위, 재즈 크로매틱 부문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국내에서는 널리 알려진 밴드 버스커버스커의 곡 '꽃송이가' 중 하모니카 솔로 부분을 연주, JTBC경연 프로그램 '슈퍼밴드'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장소 : 천안예술의전당 소공연장  
 ■문의 : 1566-0155

연극 '안녕 말판씨'

■일시 : 2월 27일~28일  
 ■'안녕 말판씨'는 고애심과 19세 손녀의 특별한 일상을 그린다. 이들의



삶에 어느 날 찾아온 낯선 남자로 인해 견잡을 수 없는 반전이 거듭된다. 손녀 역에는 그룹 '에이프릴' 채원과 뮤지컬배우 문슬아가 캐스팅됐다. 고애심은 거친 세상에서 홀로 손녀를 키우는 할머니 캐릭터다.  
 ■장소 : 서산시문화회관  
 ■문의 : 041-661-8031



<전시>고암 이응노의 사생과 소묘

■일시 : ~5월 31일  
 ■고암 이응노 화백이 1945년도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서울과 홍성 및 전국을 기행하며 사생한 인물, 풍속, 풍경, 정물, 영묘화조, 그리고 추상을 위한 습작에 이르기까지 고암의 예술정신과 예술세계를 확립하기 위해 즐기차게 노력한 사생과 소묘작품 120여점 및 고암의 사생첩을 전시한다. 전시를 위해 '이응노의집' 소장품 중 '사생'과 '소묘' 작품 100여점을 우선 보존 수복했고, 이를 처음 관람객들에게 공개하는 소장품 전시다. 작품들은 연필소묘, 수묵채색, 콩테 등 그 시대의 다양한 미술대료를 사용했다. 서울 풍경과 홍성의 풍경, 피난시절의 풍경, 변화한 도심이나 고요한 사찰의 풍경, 소, 새, 꽃, 물고기 등 평소 고암의 그림에 관한 호기심을 엿볼 수 있다.  
 ■장소 : 홍성 이응노의집  
 ■문의 : 041-630-9232



<전시>고양이민화전 '냥덕之房'

■일시 : ~6월 30일  
 ■한지를 염색하고 천천히 색을 중첩한다. 한지에서 오는 포근하고 따뜻한 이 마치 고양이와 닮았다. 과감한 구도와 색채, 촌스러운 듯 그리운 느낌, 소재에 하나하나에 행복을 바라는 소망을 담은 따뜻한 민중의 그림. 좋아하는 요소가 민화에 모두 담겨있다. <작가 노트 중>  
 ■장소 : 논산 선사인스튜디오 내 문방구  
 ■문의 : 1811-7057

서천 동백꽃 주꾸미축제

■일시 : 3월 14일~29일  
 ■선홍빛 동백꽃과 앞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주꾸미가 조화된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가 3월 14일부터 3월 29일까지 서천군 서면 마랑리 동백나무숲 일대에서 개최된다. 500년 전 마랑리 수군 첨사가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며 심었다고 전해지는 마랑리 동백 숲 일대에서 동백꽃 개화 시기에 맞춰 진행되는 축제는 봄꽃이 피기 시작하는 3월부터 5월까지 산란기로 살이 더욱 쫄깃쫄깃 고소해 맛이 일품인 주꾸미 요리 시식행사, 어린이 주꾸미 낚시체험, 포토존 등 예쁜 동백꽃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와 서해로 지는 노을을 함께 볼 수 있다.  
 ■장소 : 서천 서면 마랑포구 일원  
 ■문의 : 041-952-9525

뮤지컬 '당신이 잠든 사이'

■일시 : 3월 25일  
 ■소극장 뮤지컬 최초로 제12회 한국 뮤지컬대상에서 최우수작품상과 작사/극본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초연 이후 14년에 걸쳐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은 스테디셀러라 할 수 있다. 뮤지컬 당신이 잠든 사이는 크리스마스 이브, 가톨릭 재단의 무료병원을 배경으로 반신불수 환자 최병호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병원장 베드로가 병원 내 주변 인물들을 만나며 그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 작품이다.  
 ■장소 : 충남도청 문예회관  
 ■문의 : 041-630-2900

꿈에서 본 무릉도원의 모습

충청의 미술인

①안견(安堅)

충남 출신 미술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가 조선 초기에 활약한 안견(安堅)이다. 호는 현동자(玄洞子), 본관은 지곡(池谷)이며 1400년을 전후로 태어나 조선 세종과 문종 전후에 활약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도화서의 화원으로 정4품 호군(護軍)을 지냈다. 1447년(세종 29년) 안평대군을 위하여 '몽유도원도'를 그렸는데 이 그림이 조선 최고의 그림으로 꼽히면서 작가의 가

치를 증명해 주고 있다. 안견은 전통을 광범하게 섭렵하고 여러 대가들의 장점을 참조하여 자신의 화풍을 형성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북송의 광희에 의해 주도된 광희파 화풍과 남송의 화원들인 마윈과 하규가 형성한 마하파 화풍이 특히 중요하게 참고 되었다. 특히 산수화에 뛰어났고 초상화, 사군자, 의장도 등에도 능했다. 조선 초기는 물론 중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화단에 영향을 미쳐서 신사임당도 안견의 작품을 보고 그림공부를 했다고 한다. 이후 안견의 영향을 받은 안견화풍은 조선초중기 화풍의 주도하였다.



꿈에서 본 무릉도원의 모습. 1447년, 비단에 수묵담채, 38.7cm×106.5cm

현재 안견이 그렸다고 추정되는 작품은 다수 있는 편이나, 그가 그렸다고 확인된 작품으로는 몽유도원도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그림은 안타깝게도 일본의 텐리대학에 소장되어 있

으며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형편이다. 1619년(광해군 11) 한여현(韓汝賢)이 간행한 '호산록(湖山錄)'의 기록에 의거 안견의 출신지가 서산군 지

곡면임을 밝히고 1991년 당시 조규선 시장과 심음섭 미술협회장이 주도하여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에 기념관을 지었다.  
 /임재광(공주대학교수, 미술평론가)



# '만 18세 선거권' 민주시민교육 확대 계기로

## 내포칼럼



백진숙  
미래전략연구소 대표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만 18세면 누구나 선거권을 발휘하게 된다. 대다수는 고3이거나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거나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들이다. 그리고 보니 선거권이 주어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나이였다. 우리나라 전체 약 53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유권자들의 선한 정치·사회·교육적 영향력을 기대한다.

민주주의 역사는 선거권 확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귀족 등 상류층 남성의 전유물이던 선거권이 노동자, 여성, 흑인, 소수민족, 재외국민 등으로 확대되면서 참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다. 지금 정치권이 극단적 대결로 소모적 정쟁을 부추기고 특권을 사유화하는 일이 일상화되다 보니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깊지만 그럴수록 정치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패하고, 무능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정당이나 정치인을 숙야내야 나라가 발전하고 개인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다. 선거는 정치를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권 부여 자격은 국가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가급적 많은 이에게 주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선거는 간접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 토대이며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다. 선거권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다. 정당 활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권리도 포함된다. 언제나처럼 이번에도 정치권이 치열한 주도권싸움을 벌이느라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졌지만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으로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의 표로 대통령, 국회의원도 바뀔 수도 있다. 새내기 유권자의 이런 힘을 알기에 정치권의 핵심 공략 대상이

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만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에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 있다. 하다못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다.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다. 이들이 선거권을 갖게 된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나친 걱정은 아니다. 선거권이 주어진다고 학교 현장이 정치화되거나 학생들의 수업권이 훼손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3 학생들의 주된 관심사는 아무래도 공부일 테고 투표에 참여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일부 교사들의 정치 편향을 걱정하는 시선도 있지만 모든 교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교사가 과연 있을까 싶다.

선거권을 만 18세로 확대한 것은 오히려 민주시민 교육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미 교육부를 필두로 하여 일부 지자체 교육청들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참정권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들을 내놓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선거권 확대를 계기로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까지 포함해 체계적인 선거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선거 교육을 제대로 받은 유권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시민·유권자로서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커리큘럼으로 갖춘 시민교육 과정이 강화되고, 그 과정의 이수 시기가 선거연령이 되기를 바란다. 유권자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도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다.

또한 선거권 확대를 계기로 정치권이 젊은 유권자들의 삶과 국가적 요구에 보다 진지하게 반응하길 바란다. 청년은 미래의 주역이라고 치켜세우지만 정작 그들의 삶이나 고민에 무관심했다면, 이제 그들의 고민에 동참하길, 그래서 궁극에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늘리고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번 총선부터 만18세 이상 투표  
전체 53만 명 유권자 늘어날 듯  
정치권, 새내기유권자 핵심 공략

학교현장 정치화 우려 목소리  
민주시민 교육과정 정착 계기로  
정치문화 개선·참여 확대 기대

## 시골이 청년을 만나면

### 힘내라, 시골청년①



정명진  
㈜지역콘텐츠발전소 대표

서천군 한산면 '삶기술학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시골살이를 꿈꾸는 청년들은 이곳에서 한 달 동안 살면서 모시, 소곡주, 대장간 등 다양한 삶의 기술을 배우고 그 경험을 기록했다.

강의는 청년들이 주민들을 만나 쓴 인터뷰 글을 코칭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낯선 농촌환경 때문인지 청년들이 쓴 초고는 경직되어 있었다. 자신의 글이 혹시나 한산면 주민들에게 누가 될까 봐 최대한 조심스럽게 쓴 것 같았다. 먼저 마음부터 말랑말랑하게 풀어줘야 했다.

"인물과 인물이 만나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과 사건을 연결하면

스토리가 되죠. 여러분과 같은 청년이 지역 주민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특별한 사건이네요. 시골에서 흔히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사건의 주인공이네요. 그럼 주인공답게 주민들을 만난 자신의 느낌을 과감히 드러내세요." 강의를 듣고 나서 몇몇 친구들이 고쳐 쓴 글을 보내주었다. 초고와 다르게 글에 생동감이 담겨 있었다. 청년들이 시골을 바라보는 풍경, 주민들을 만난 느낌이 온전히 드러났다. 그제야 그들 내면의 어떤 부분이 스스로를 시골로 이끌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청년들만의 시선으로 시골을 바라보며 자신의 꿈을 투영했다.

시골이 청년을 만나면, 시골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으로 변한다. 영화감독이 되고 싶은 청년은 넓은 읍내 거리가 세트장같이 보이고, 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 시골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매력적인 시장이다. 공연을 기획하는 청년에게 시골은 무대에 올리고 싶은 이야기거리로

가득 찬 보물창고가 되기도 한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와 귀농귀촌 청년들의 고민을 이번 연재를 통해 풀어보려고 한다.

공간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로 변하는 법이다. 노인들만 남아 있고, 빈집이 넘쳐나고, 일상이 지루한 곳으로만 바라보면 시골은 늘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 시골을 다양한 기능성의 공간으로 바라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귀농귀촌을 꿈꾸는 청년들밖에 없다. 한산면 '삶기술학교'에서 한 달을 보낸 도시 청년들 일부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한산면에 남았다. 몇몇은 다시 도시로 돌아갔거나, 자신이 동지들 틀 또 다른 시골을 찾아 나섰을 테다.

시골에서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돌이키기 힘들다. 그것이 시골의 매력이다. 상상력을 펼칠만한 뭔가를 시골에서 찾는다면 다양한 실험을 해주길 바란다. 어쩌면 그 실험이 시골의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

## 슬럼프에 대하여

### 나태주의 꽃꽂편지



시인·꽃꽂이문화관장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사막에 사는 전갈의 이야기다. 전갈은 사막의 맹독성 절지동물. 생김새도 흉측하지만 꼬리 부분에 치명적인 독침이 있어 이 독침으로 먹잇감을 공격하고 나서 그 대상이 죽기를 기다렸다가 식량으로 삼는다고 한다. 때로는 그 먹잇감 가운데 제법 큰 동물도 걸려 든다고 한다.

그런데 이 천하무적 같은 전갈도 잡아먹히는 때가 있다고 한다. 바로 독침으로 먹잇감을 쏘았을 때이다. 그 순간을 노려 사막여우 같은 짐승이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전갈을 잡아먹는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전갈 같은 일단 상대방을 쏘고 난 다음에는 모래 속으로 재빨리 몸을 숨긴다고 한다.

한참 동안 몸에서 빠져나간 독이 새로 생겼을 때 슬그머니 밖으로 나온다곤 한다.

바로 이것이다. 기다림이고 물러섬

이고 인내이고 시간에 호소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 안에 새로운 방법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우리 인간도 동물의 세계지만 이러한 전갈에게서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의 현명이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슬럼프에 빠졌는가? 그렇다면 일단은 참을 줄 알아야 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한다. 나름 궤도 수정도 필요하다. 터닝포인트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힘을 비축할 때 암중모색 새로운 출구가 열린다.

나 자신만 해도 여러 차례 슬럼프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다. 인생의 위기. 시인의 슬럼프. 그 슬럼프와 위기가 그 이후의 나의 인생과 시를 새롭게 좋은 쪽으로 바꾸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돌아와 고마운 일이고 다행한 일이다.

오늘날 우리는 너나 없이 너무나 성급하다. 기다릴 줄 모르고 참을 줄 모르고 물러날 줄 모른다. 그러니 나날이 고달프고 지치고 답답한 것이다. 목전의 유익이나 편리보다는 보다 먼 날의 성공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 인생은 의외로 길고 지루하지만 한 편으로는 아름답고 찬란하기도 한 것이기도 하다.

## 충남은 이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 생생현장리포트



이정구  
충남사시신문 기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1월28일 현재 세계적으로 16개 국가에서 발생해 4576명이 확진을 받았다. 그리고 이중 106명이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최초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에서 4515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 106명 전원이 중국인인으로 확인됐다. 아직까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망소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충남도민 14명이 이들 확진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과 인근 지역을 봉쇄하면서 정부는 한국인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전세계 4편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지체류 한국인 중 전세계 탑승을 신청한 한국인은 700여 명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은 30~31일 전세계 파견을 추진 중이다.

현지 공항에 집결한 한국인 탑승 예정자 전원은 탑승 전 한국과 중국 양국 의료진에 의해 검역 절차를 밟는다. 전세계 탑승자 중 검역을 마친

이들은 곧바로 한국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로 한 번에 이동한다.

정부는 14일간 지속적으로 이들의 증상 발현 여부를 체크할 계획이다. 격리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면 정밀 검사 등을 거쳐 확진판정을 받으면 국가지정 음압병상으로 곧장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다.

지난달 28일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천안을 비롯한 충남지역 일부 정치인과 시민들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전세기를 통한 자국민 후송 자체를 반대하기도 했다. 그러다 결국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각각 나눠 수용하는 것으로 이튿날 확정됐다. 전염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는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타국에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자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세기로 입국하는 국민들은 국가차원에서 2중 3중의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된다.

전세기로 입국한 국민들과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나게 될 일도 없다. 감염될 확률도 전혀 없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충남도민은 2007년 12월11일 허베이 스푸리트호 원유유출 사고 때 온 국민이 충남으로 달려와 인간띠를 형성하며 재난을 극복했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이제는 충남도민이 어떤 반응을 보여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 충남 축제 대한민국 우수 축제 등극 '위상UP'

## 2020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충남 5개 시군 선정

- 계룡軍문화축제 콘텐츠부문
-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예술전통
- 보령머드축제 글로벌 명품
- 삼길포우럭축제 연출 부문
- 예산장터 삼국축제 연출부문

충남 시군의 문화축제 5개가 2020년 제8회 대한민국콘텐츠 대상에 오르는 등 충남의 문화축제의 위상이 높아지

고 있다.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계룡軍문화 축제'는 4년 연속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축제콘텐츠부문)'에 선정됐다. 계룡시는 그동안 육군의 지상군페스티벌과 함께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군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앞두고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9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하는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에 대비하여 3개국의 해외군과 대 초청, 다채로운 공연을 추진해 축제의 세계화를 꾀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2019년



지난해 개최된 서산 삼길포우럭축제 모습

개최된 전국의 축제 중에서 지역경제,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우수 축제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아산성웅이순신축제도 '축제예술전통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아산성웅이순신축제는

지역 역사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축제 구성 및 장래 발전가능성이 높은 축제로 인정받아 축제예술·전통부문 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예산장터 삼국축제'는 연출우수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예산장터 삼국축제'는 경쟁력과 발전가능성을 인정받아 축제프로그램 연출우수부문 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둔 것. 이밖에도 우리나라 해양관광축제의 롤모델이 된 보령머드축제(축제글로벌명품)와 수산물과 체험을 결합한 삼길포우럭축제(축제프로그램연출우수)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정신문팀

## 태안에서 열대과일 파파야 '주렁주렁'

### 동남아 이주민에 인기

**[태안]**을 겨울 기온이 최근 10년 평균보다 3~7도나 높은 이상 고온현상이 지속되면서 태안 안면도의 한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파파야 열매가 큼직하게 자랐다. 태안군 안면을 창기리 '오행팍연수원' 대표 이용권(53)씨의 농장(2644㎡)에는 바나나와 파파야에서 수확이 한창이다. 태안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해 수입산 바나나보다 당도가 월등히 높다. 이곳에서 재배한 바나나는 그루 당 수확량이 50kg으로 1그루 당 평균 30~35kg 보다 높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열대과일인 파파야에서는 연간 9톤이 생산돼 지난해 4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파파야 등 열대과일은 국내에 거주하는 동남아 이주민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아 1년 내내 수요가 높아 최근 새로운 인기 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용권 대표는 "앞으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한겨울을 비롯, 1년 내내 열대과일을 직접 관찰하고 맛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관광객들에게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안군 제공

## 서산시, 감태 명품화 추진

### 감태 포장재 등 지원

**[서산]**서산시가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감태의 명품화를 추진한다. 서산감태는 청정 가로림만에서 채취돼 영양분이 풍부하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며, 피부미용, 당뇨, 노화 방지, 니코틴 해독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영세한 감태 생산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을 대표

하는 수산물로 육성하고자 감태 포장재 지원, 감태 생산시설 지원 등 다양한 보조사업 지원을 통해 '감태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감태 명품화 추진을 위해 올해 총 8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감태 포장재 지원 사업, 감태 생산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어촌뉴딜 300사업의 일환으로 감태 공동작업장도 만들 예정이다. /서산시 제공

## 갯벌 고립된 관광객 10명 구조

### 이상길 의용소방대장 출동

### 퇴임 10일 앞두고 구조 나서

**[태안]**퇴임을 10여일 앞둔 의용소방대장이 갯벌에 고립된 관광객 10명을 무사 구조해 화제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달 11일 낮 12시 56분쯤 고남면 옷점항 인근에서 해변길 트레킹 중이던 관광객 10명이 물때를 놓쳐 갯벌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대전지역 산악회 회원 10명은 해안길을 따라 영목항으로 가던 중 갯벌로



건너가려다 물이 점점 차오르자 더 이상 오도 가도 못하고 갯벌에 갇혀 119에 긴급신고로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한 것. 이상길 고남면의용소방대장은 즉각 민간구조선을 수배해 관광객 구조에 나섰다. 이임을 10일 앞두고 있는 이상길 대장은 "소방대장 임명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고를 받고 지난 여름 집에서 놀러온 어린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떠올랐는데, 소방 대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태안해경은 "바다 연안의 갯벌,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장소는 가급적 출입을 피하고, 반드시 물때에 맞춰 썰물에서 밀물로 바뀌기 전후 신속하게 빠져 나와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명령/주간태안신문 leeiss@hanmail.net

청한 것. 이상길 고남면의용소방대장은 즉각 민간구조선을 수배해 관광객 구조에 나섰다. 이임을 10일 앞두고 있는 이상길 대장은 "소방대장 임명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고를 받고 지난 여름 집에서 놀러온 어린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떠올랐는데, 소방 대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태안해경은 "바다 연안의 갯벌,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장소는 가급적 출입을 피하고, 반드시 물때에 맞춰 썰물에서 밀물로 바뀌기 전후 신속하게 빠져 나와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명령/주간태안신문 leeiss@hanmail.net



한 어민이 가로림만에서 감태를 채취하고 있다.

## 예산군 '예산사과빵' 출시

**[예산]**예산군 예산사과 융복합활성화 사업단은 사과빵 시제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단은 작년 5월 예산사과빵 시제품을 생산한데 이어 시식평가를 통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 출시된 것. 사과빵은 아삭함과 상큼함을 느낄 수 있어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재구매 의사가 매우 높았다. 예산 사과빵은 예약호 출렁다리 인근의 황새25시, 마트GU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대전-당진고속도로 양

쪽방향 예산휴게소의 입점도 협의 중이다. 군은 사과빵 개발 후 사과소비와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가공 상품 및 농촌체험농장 등 다양한 예산 사과 가공품을 개발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사과국수를 비롯해 사과기능성 음료 등을 개발했고 특히 사과국수는 상큼한 사과 향과 쫄깃한 식감으로 상품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예산군 제공

## 10년 가로청소하며 주운 돈 성금

### 표기풍씨와 딸 100만원

### 희귀병 앓는 현우 군에 전달

**[당진]**당진의 가로청소원이 10년간 길거리 청소를 하면서 주운 돈을 난치병 어린이에게 전달했다. 당진시 읍내동에 거주하는 표기풍 씨가 지난 10년간 가로청소원으로 길거리

를 청소하며 주운 50여만 원에 딸 영신 씨가 50만원을 더해 100만 원을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에게 전달했다. 표 씨는 지난 19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2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병원에서 지냈고, 뇌병변 장애 2급을 판정받았다. 하지만 계속된 재활 훈련으로 거동이 가능해지며 가로청소원으로 일을 시작했고, 10년 간 청소하면서 주운

동전부터 화폐 50여만 원을 모은 것.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표 씨의 딸이 "좋은 곳에 사용하자"며 "어려운 곳에 성금을 전달하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딸의 뜻을 따라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현우 군에게 지난 18일 성금을 전달했다. 표 씨는 "현우와 엄마가 깨끗하게 살았으면 한다"며 "분명 희망은 찾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수미/당진시대 d911112@naver.com

## 이유라 씨 '해오 외교관상' 수상

### K팝 사우디 공연 성공 공로

### 청와대 아랍어 통역 도맡아

**[당진]**합덕 출신 통역관 이유라 씨가 제7회 해오 외교관상을 수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쳐 문재인 대

령까지 청와대에서 아랍어 통역을 도맡아 왔다.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최초 여성외교관으로 부임해 2등 서기관 겸 영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사우디에서 케이팝 가수들이 성공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임아연/당진시대 zelkova87@hanmail.net

## 청양 구기자 융복합사업단 출범

### 유통센터 건립 등 추진

**[청양]**청양군이 구기자 융복합 산업화를 이룰 사업단을 출범했다. 사업단 출범식은 앞으로 청양구기자 규모화, 생산-유통-가공-소비 연계와 품질관리 거점인 청양구기자산 자유유통센터 건립(대지면 주정리)하게 된다. 또 특화 가공상품 개발, 국내외 소비시장 확대, 민관협력체계 구축, 농가조직화 및 역량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사업단 출범은 지난해 정부 농촌융복합사업(30억) 선정의 결실이다. 청양구기자는 2006년 지역특구지정, 2007년 지리적표지제, 2014년 주산지지정고시를 받은 한국의 대표적 인 농산물 브랜드다. 현재 700여 농가가 50ha에서 연간 200톤을 생산해 전국 친환경 구기자의 85%, 전국 GAP 면적의 93%를 점유하며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청양군 제공

# 겨울 바다가 입안으로...뚝심으로 지킨 원조 서해 굴밥

## 소상공인의 희망 '백년기업'

### (1) 서산 큰마을영양굴밥

충남도는 도내 소상공인 중 3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2대에 걸쳐 한 직종에서 가업을 잇고 있는 기업을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선정 기업들은 시설 개·보수와 장비구입, 디자인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경영지원금과 현판제작금을 지원받는다. 본보는 2020년 신년 기획으로 일가의 사업 노하우를 이으며 소상공인들의 희망으로 우뚝 선 도내 백년기업들을 소개한다.



김병식 대표(사진 왼쪽)가 어머니 노점에 씨와 함께 가업승계 기업 현판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 간월도서 2대째 식당 운영

### 자연산 굴 고집하며 전국 입소문

충남 서해안의 대표 수산물인 굴. 10월부터 4월까지가 본격적으로 채취되는데 굴이 씨알이 가장 굵고 맛이 한창 오를 때는 매서운 추위가 절정을 이루는 12월~1월 사이이다.

서해안 자연산 굴은 밀물 때만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씨알이 납해안 굴보다 작지만 굴향이 더욱 진한 게 특징이다. 바닷가 사람들은 이 씨알 작

은 굴을 보양식으로 틈틈이 즐겼는데 굴밥이 대표적이다.

바다위에 떠 있는 사찰, 간월암으로 유명한 서산 간월도에 들어서면 줄지어선 굴밥집이 또 다른 장관을 이룬다.

사방이 갯벌인 이곳에서 마을 주민들은 굴 철이 되면 아침, 저녁으로 갯벌에 나가 자연산굴을 채취한다. 뽕양게 살이 오른 굴과 밤, 고구마, 대추 등을 함께 넣어 밥을 짓고 어리굴젓을 올려 먹는 굴밥은 이곳 간월도에서 처음 탄생했다. 주민들이 예부터 즐겨먹

던 향토음식은 이제 서해안을 대표하는 상품이 됐다.

간월도 굴밥집의 터줏대감인 큰마을 영양굴밥(대표 김병식)은 1980년에 문을 열어 2대째 운영되고 있다. 현 김병식 대표의 부친인 김운용(83) 씨와 모친 노점애(77)씨가 마을 창고를 개조해 식당을 연 것이 시초다.

간월암을 찾는 불자들, 바다에서 영감을 얻으려던 문화예술인들에게 굴밥을 선보이면서 차차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985년에는 창고를 벗어나 현재의

자리로 이전했고 2002년에는 부모님들의 건강악화로 아들 김병식 씨가 본격적으로 식당 운영에 합류했다.

김병식 대표는 대를 이어 사랑받는 큰마을영양굴밥의 비결로 '자연산굴'을 꼽았다. 김 대표는 "큰마을영양굴밥집에 가면 자연산굴을 먹을 수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큰마을영양굴밥집의 굴밥에 들어가는 '돌굴'은 양식굴이지만 자연산에 가깝다. 사람이 종패를 뿌려 관리하는 인공굴과는 달리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최대한 자연산에 가깝게 양식되기 때문에 풍미가 진한 것이 특징이다. 가격도 일반 양식굴 보다 비싸다.

큰마을영양굴밥집의 또 다른 자랑은 어리굴젓이다. 간월도 갯벌에서 채취한 100% 자연산 굴만을 사용해 지난 해에만 2900kg을 담갔다. 손님상에 반찬으로 올리기 위해서다.

짜지 않고 굴 특유의 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이집 어리굴젓의 비결은 '발효'다. 소금을 뿌린 상태로 상온에서 일주일 간 발효시키는 데 이 과정에서 굴의 비린 맛은 제거되고 감칠맛은 강해진다.

서해안에서도 간월도만의 전통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자연산굴로 직접 어리굴젓을 담그는 곳이 크게 줄면서 큰마을영양굴밥의 어리굴젓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 대표는 "자연산 굴로 어리굴젓을 직접 담가 손님상에 내는 곳은 정말 드물 것"이라며 "비용도 많이 들고 품도 많이 들지만 손님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전통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한 재료와 전통의 방식을 인정받아 큰마을영양굴밥은 지난 2007년 충청도 향토음식으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서산시 건강식당인증점, 충남도 '가업승계기업' (2019년), 중소기업진흥기부 선정 '백년가게' (2018년) 등 각종 인증을 취득하며 명실상부 충남을 대표하는 음식점으로 자리매김했다.

김 대표는 굴밥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굴밥을 주 메뉴로 한 정식과 그에 어울리는 전통주 등 한상차림을 선보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일식, 한식, 양식, 중식 등 각종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비롯해 전통주 지도자 자격증도 취득했다. 2014년부터는 기능장 시험도 꾸준히 도전해 오고 있다.

김 대표는 "굴밥 정식과 직접 빚은 술, 건강식초 등이 어우러지는 세련된 느낌의 한상차림을 선보이고 싶다"며 "질 좋은 재료와 숙련된 손맛으로 서해안 대표 굴밥집의 명성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동 khdf1226@korea.kr

## '택시운전사'로 웃었던 보령시 촬영 지원

### 영화·드라마 촬영지 지원액

#### 숙박비 등 최대 5000만원까지

#### 관광·경제 활성화로 유턴

[보령]보령시가 주요 관광지 등을 명소화(名所化) 하기 위한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물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이는 지역 내에서 촬영 및 제작에 소요되는 숙박, 음식, 자재 구입 등 비용을 제작업체에 일부 지원해 소비를 촉진시키고, 드라마 및 영화의 흥행으로 촬영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기 위한 것.

시는 지난 2017년 영화 '택시운전사'와 2018년 '안시성', 지난해에는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및 '초콜릿'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촬영지의 배경이었던 청소역과 오전향 및 충청수영성, 겨울철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급증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시는 올해도 영화·드라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 내에서 촬영하는 장편영화, TV드라마로 극장 개봉 또는 방영이 확실한 작품이

어야 하고, 배급·편성 계약서가 없는 경우 심사 후 선정여부를 개별 통보한다. 영화업, 드라마 제작업 등 신고를 필한 제작사 대표 또는 프로듀서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보령시 내 소비금액의 30%까지 환급하는 것으로, 2~4회차 미만은 최대 1500만 원, 5회차 이상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로케이션 촬영이 80% 이상일 경우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지원비는 숙박비 식비, 유류비, 장소·차량 임차, 세트제작 등으로 모든 항목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30%까지 환급 할 계획이다.

/도정신문팀

## 갯바람 맞은 냉이·달래 수확 한창

[태안]태안지역 농민들이 냉이와 달래 수확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태안지역 100여 농가에서 생산되는 냉이는 갯바람을 맞고 자라 씹살한 맛과 진한 향이 일품이다. 태안에서는 매년 1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약 200여 톤의 냉이와 달래를 수확

출하고 있다. 태안 달래는 비옥한 황토에서 자라 맛과 향이 독특하고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 함유량이 많아 피로·불면증·빈혈·중풍·식욕부진·동맥경화 등에 효과가 있어 도시민들의 건강식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태안군 제공



### 사서들의 서재



<아인슈타인의 주사위와 슈뢰딩거의 고양이- 저자 폴 헬렌>

## 고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슈뢰딩거의 고양이'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방사성 물질과 방사능 측정 장치, 독이 담긴 병과 함께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닫힌 상자에 고양이를 넣어둔다. 방사능이 방출될 가능성이 정확하게 50%가 되도록 설정한 다음, 만약 방사능이 방출되어 측정 장치에 검출되면 독이 담긴 병은 깨지고, 그 독에 의해 고양이는 죽게 되도록 설정해 놓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상자 뚜껑을 열고 나서야 비로소 고양이의 생존 여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거시세계)에서 고양이는 이미 죽었던

살았던 어떤 한 상태일 것이고 그저 우리가 관찰하지 못했을 뿐이지만, 양자역학이 다루는 미시세계에서는 관찰하기 전까지 고양이는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어있을 수도 있다. 상자 뚜껑을 열어보으로써 비로소 둘 중 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슈뢰딩거의 이 사고실험(진짜로 고양이한테 그런 짓을 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은 양자역학의 괴이함과 난해함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되었으며, 지금은 과학을 넘어 혼란스럽고 애매모호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고 있다.

이런 사고실험을 한 사람이니 양

자역학을 연구한 과학자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사실 슈뢰딩거는 양자역학이 불완전한 이론이라고 생각한 과학자였다. 슈뢰딩거는 모든 자연현상 및 힘을 예외 없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 믿은 사람이었고, 고양이 실험 역시 양자역학의 애매모호함을 비판하기 위해 제안한 실험이었다. 살아있지만 죽은, 상반된 상태가 공존한다는 것이 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것이다.

양자역학에 비판적이었던 것은 아인슈타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은 주장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그래서일까, 둘은 평생에 걸쳐 친분을 유지했고, 서로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 책은 이 두 유명한 과학자가 어떻게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달성했는지, 어떻게 살아왔고, 이후 어떤 연구를 했는지 조명한 책이다. 과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읽기에 초반 부분은 다소 어렵고 난해한 표현들이 많아 읽기 힘들거나 지루할 수 있다. 그러나 책 중후반의 시대적, 사회적 상황이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과학에 대해 잘 몰라도 충분히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만하다.



김희영  
충남도서관  
정보서비스팀



#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학교생활 모색

김동일 의원,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 특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월 26일 공주시 청 대회의실에서 ‘엄마들이 보는 공주는 학교 다니기 좋은 도시인가’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김동일 의원(공주1)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기 위해 기존과 달리 일과시간이 끝난 오후 7시부터 시작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은 “자녀의 학교생활은 어떨지,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 수 없는지 논의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역사 속에서 교육의 도시로서 중추적 역할을 다 해왔던 공주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등 시대여건의 변화로 그 위상이 약해지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새로운 위기 앞에서 공주 교육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



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등하굣길 안전, 버스노선 폐지 및 운행횟수 감축으로 인한 불편한 교통, 원도심 학교통폐합, 방과후돌봄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사)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윤여관 교육문화위원장은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과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계한다면 지역을 더욱 알아가는 동시에 일자리로도 연결될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 보유한 건물을 기숙사와 강의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대학 진학을 위해 공주를 찾은 학생들이 늘어

나며 건강한 문화교류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공주시의회 이상표·정중순 의원은 각각 교육문화 개발 주체에 대한 고민과 원도심 학교통폐합 해결책을 제시했고, 공주책읽는여성행동 이은영 대표는 올바른 성교육 필요성, 어르신놀이협동조합 김은아 이사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엄마들의 건의사항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제보 받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운영  
위법행정, 시책 개선 등

충남도의회는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기간을 연중 운영한다.

도민제보는 도민의 직접참여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코자 마련한 제도로 지난해부터 접수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했다.

제보 대상은 위법·부당한 행정이나 예산낭비 사례,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 기타 도민생활에 불편을 느낀 사례 등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도의회 누리집(<http://council.chungnam.net>) ‘도민제보 바로가기’ 알림창이나 팩스(041-635-5283) 또는 방문, 우편접수(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도

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의사당 당관실)를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내용과 제보자 신분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제보 내용은 올해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제보자에게 감사 종료 후 소정의 기념품과 함께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단,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평소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보고 느낀 사항을 제보해주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더 나은 충남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 주민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머리 맞대

김형도 의원 요청 의정토론회

갈수록 축소되고 고령화하는 충남지역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민관 토론회의 장이 열렸다.<사진>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월 26일 논산문화원 다목적 홀에서 마을사업 육성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형도 의원(논산2) 요청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이 좌장을, 가와바코리아(주) 윤기확 대표가 발제를 맡았고 충남연구원 이인배 기획경영실장과 산업연구원 정운선 박사, 충남도 최문희 균형발전담당관,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구자인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마을기업 운영을 통한 소득·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해법을 모색하고 도 관련 정책방향과 전략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 주민과 함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마을사업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



다”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소득 창출 등 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과 상시 소통하고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기확 대표는 주제 발표에서 일본의 마을 살리기(창생) 정책의 성공사례이자 일본 6차산업을 대표하는 원점인 군마현 가와바 마을의 성공 과정을 토대로 마을 살리기 노하우를 전했다. 가와바 마을은 인구 3500여 명의 작은 마을이지만 연간 200만 명 가량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다.

이인배 실장은 마을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주민참여 중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6차산업 시대 농업플러스 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마을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정운선 박사는 마을기업 우수사례를 소개한 후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청년 일자리 확대·지역 정착 돕는다

방한일 의원 요청 의정토론회  
청년 정책 활성화 방안 제시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17일 예산문화원 강당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 발전 모색’을 주제로 올해 첫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방한일 의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예산1)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엔 방 의원이 좌장을, 충남연구원 김기흥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고 충남도 강석주 청년정책과장, 예산군의회 강선구 의원, ㈜행복한여행나눔 김영준 대표,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신소희 연구원, 젊은협업농장 정민철 상임이사, 예산군청년농업인협의회 김면중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방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청년 기준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15-29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고용보험법은 15-34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며 “중구난방인 법적 청년 기준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일 국회에서 ‘청년기



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 자리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 더 쉽게 정착하고, 지역사회는 청년을 통해 활력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기흥 책임연구원은 다양한 해외 사례를 들며 “청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당위성, 지속성, 확장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의 청년 정책을 이끌고 있는 강석주 청년정책과장은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소개하며 “더 많은 청년을 위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의원시론



이 공 휘  
충청남도의원

# 충남도 공유재산 관리 안심하세요

싼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한 경제신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 등에 의뢰해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분석한 내용을 지면기사로 실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공시된 재무재표상 유형자산 규모는 798조 1700억 원인 반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계받은 전체 공유재산 규모는 740조 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똑같아야 할 수치가 58조 원 이상이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충남도 또한 4조 7000억여 원과 13조 5000억여 원으로 65% 가량 불일치 비율을 보였다. 분청 회계과와 점

검한 결과 재정상태표상 자산현황은 12조 9579억 원으로 위에서 기술한 공유재산 가액과의 차이가 무려 8조 1361억 원이나 됐다.

올해 예산 7조 7835억 원보다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이처럼 금액이 제각각인 원인은 2008년 공유재산과 e-호조 시스템 연계시 재산확인이 어려운 공작물과 나무, 대나무 등 재산으로 등재할 수 없는 항목들이 존재하는 점과 재무회계 결산과 공유재산 결산방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재무회계 결산상 재산의 평가는 토지의 경우 원가, 건물은 시가로 하고 자산의 범위도 건설 중인 도로와 감가상각이 반영된 건물 등을 모두 포

함한다. 하지만 공유재산 결산상 재산의 평가는 토지와 건물 모두 취득 원가로 표시되고 자산 범위도 물품, 차량, 입죽목(立竹木) 등은 제외되며 재산으로 인식되는 시점도 소유권이전 기준(준공 또는 완료)일이다. 이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이중장부 형태로 운용돼 왔던 것이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2016년 부터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집행부와 함께 개선책을 논의해 왔다.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13일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자산관리 거버넌스 구축’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실태와 대응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을 펼쳤고 지난 31회 정

례회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 점검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 결과 2018년 안면도 공유재산에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적용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간정보화했고 지난해에는 충남도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우리보다 앞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서울과 부산보다 훨씬 발전된 모델로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 충남도는 불일치된 항목과 금액에 대해 올해 3월을 목표로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아마도 전국에서 가장 빨리 대응을 하는 지자체가 될 것이다. 충남도의 공유재산은 전국에서 가장 앞서고 있기에 20만 도민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다.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둘러



우리지역 일꾼을 만나다

충남도의원은 각 지역을 대표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지역의 일꾼들이다. 충남 도정신문은 제11대 도의회 42명의 도의원을 차례대로 소개한다. 각자 주력하고 있는 정책과 각오 등에 대해 들어봤다.

“금강 발전·자치분권 강화 실현하겠다”

오인환 의원(논산1)

특위위원장 수질개선 노력

직접민주주의 제도 고심



국 지방의회처럼 충남에서도 도민발언대 설치 여부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꾸준히 연구해 도민이 주인되는 충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

11대 의회 입성 이래 금강 되살리기에 주력해 왔다=“11대 의회에 등원한 후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금강특위)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충남의 젓줄인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금강 생활권역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금강 주변지역의 경제성장률은 도내 북부권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단순한 경제부양 정책만 으론 북부권역을 따라잡기 힘든 시기며 인구 감소와 저성장시대의 도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기존 지역발전 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 앞으로는 역사성과 특수성, 환경성, 주민체감형 중심 지역 발전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다양한 역사문화 생태자원과 하천·유역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강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금강의 역사, 생태, 문화, 경관 자원 등을 발굴 보존함으로써 비교 우위를 점한다면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그 해법을 금강특위가 선도적으로 마련하겠다. 금강 생활권 지역 의원들이 합심해 금강권역 생태연구는 물론 수질 개선을 통해 금강 수계와 연결된 하천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충남도와 전북도, 중앙정부, 전문가 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정확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에 힘쓰겠다. 향후 금강하굿둑의 막힘을 뚫어내는 일도 추진하겠다.”

자치분권 개헌에도 앞장서 왔는데=“지방분권형 개헌은 시대가 원하는 필요충분조건인 만큼 반드시 통과될 것이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진행이 더디고 지방의 권한은 여전히 제한돼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 지방의회는 물론 경찰까지 자치조직권을 보유한 힘 있는 지방정부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을 완성할 수 있다. 특히 도민의 도정 참여를 조금이라도 더 보장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현 체제인 간접민주주의 단점을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시민자율발언대를 설치한 미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을 꼽자면 =“지난해 7월 논산 돈암서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9개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유교문화의 보존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기쁘고 뿌듯하다. 이에 발맞춰 논산시 노성면에 들어설 충청유교문화원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교문화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 학술토론회 등을 통해 충북과 대전, 세종 등 인근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농업에만 쫓겨있던 정책을 관광과 환경, 역사, 문화를 포함한 충남 남부지역 특색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도내 남부지역에 도립 화장장과 국립호국원도 설치해야 한다. 화장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에 상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한 논산과 계룡 등 남부 지역 도민은 전주와 대전, 세종 등 인근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등 상례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현충원 대체 시설인 국립호국원은 현충원보다 넓은 범위의 국가유공자를 추모하는 곳이다. 6.25참전유공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충남에도 호국원이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민께 한 말씀=“정치인은 세상을 향해 귀가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를 지지해 주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비판해 주는 분도 계시다. 그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깨닫게 되고 스스로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된다. 항상 도민 말씀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40년 공직 경험 살려 지역 현안 해결”

이영우 의원(보령2)

화력발전소·공군사격장 등

장기 민원 해결 앞장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나?=“행정 분야에 대해 답답해하는 도민이 많다. 이 때문에 40여년간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가려운 부분을 속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의원이 되고자 11대 의회에 입문했다. 그동안 5분 발언을 통해 산후조리원 시설이 열악한 보령과 서천, 청양 등 서남부지역에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를 촉구했고 도내 공공갈등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서해안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과 행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이·통장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끊임없이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도민을 주인으로 모시며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 왔다=“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입지를 통한 피해를 일정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 반면 발전소 입지지역과 떨어진 인근 지역의 경우 보상 등을 받지 못함에도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에 의해 지역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지역이 수혜하는 경제적 이득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률에서 정한 5km보다 확대해 시군 전 지역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시 발전법 제17조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우선고용제도를 시군 전 지역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 취업 희망 1순위로 뽑히는 공기업에 매년 4개 시군의 청년 50여 명 이상이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 제146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는 1kw당 1원, 화력발전사업자는 1kw당 0.3원을 납부하고 있으나,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등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원자력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 추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겠다.”

보령 공군사격장 소음 피해 문제도 관심을 가졌는데=“보령시 신흥동에 소재한 공군 제2388부대 사격지원은 1962년 8월에 설치된 후 매년 150여 일동안 발칸, 오리콘 등 대공포를 대천해수욕장 앞 바다에 사격하고 있다. 1986년 12월에 설치된 보령시 웅천읍 소항리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기지지원전대 웅천파견대에서도 매년 220여 일 동안 연습폭탄 투하, 기관총 사격, 조명탄 투하 등의 사격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두 곳의 공군사격장으로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에 고통받아 왔고 헌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인권과 환경권을 침해받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살아왔다. 사격훈련이 이뤄질 땐 전화 통화조차 어려울 정도로 생활 불편을 말할 것이 없다. 관광객은 점차 줄어드는 데다,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심각한 환경피해로 인근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행인 점은 군 사격장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이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이른바 ‘군소음법’이 지난해 10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하지 않은 채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 이제부터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단기적인 대책과 더불어 피해지역 주민의 항구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도민께 한 말씀=“보령시민과 충남도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의견을 대변하는 심부름꾼인 만큼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두 발로 뛰고 있다. 잘하는 것은 많이 응원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따끔히 채찍질 해 달라. 11만 보령시민을 포함한 220만 도민 모두와 소통하고 누구나 오고 싶은 보령, 웃음이 가득한 충남을 만드는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의원시론

항일 독립운동 성지 홍성, 나라사랑 성지로



조승만 충청남도의원

로 조성 됐으면 하는 바램을 해 본다. 2020년을 백야 김좌진 장군의 항일 독립정신을 선양하는 해 선포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난 후 홍성군의 홍주 의사총, 총령사, 김좌진 생가지를 참배했다.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충남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으로 평화와 번영을 있게 한 주춧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포신도시에 있는 충훈탑 참배를 하고 충남도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등 연초부터 의정연수 등 바쁜 일정을 보내기도 했다.

홍성은 백야 김좌진 장군의 생가지와 만해 한용운 생가지, 그리고 항일 의병활동의 근거지인 홍주성과 칩락

자 일본으로 부터 나라를 구하겠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장렬히 산화한 의병이 잠 들어 있는 홍주 의사총 등을 중심으로 홍성을 자랑스런 역사문화의 고장, 충절의 고장, 항일 독립운동의 성지로서 나아가 전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곳으로 육성 발전 키지는 제안을 해 본다.

지난해 12월 24일 양승조 도지사께서 홍성을 방문해 더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을 지향하면서 충남혁신도시 지정 노력과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 중입자 암센터 종합병원 유치 계획과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른이 행복한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 등 여러가지 시책을 발표했다. 도지사는 독립군 투쟁사상 최대 규

모 승리인 청산리 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행사를 국가적 행사로 열릴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하고 특히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와 다큐멘타리도 kbs나 mbc, sbs 등 국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방송 등에 방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연극제’ 등 답사 프로그램과 문화 콘텐츠를 마련, 청산리 전투의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 하며 앞으로 갈산면 일원에 127억원을 투입, 청산리전투 체험장과 활터, 교육체험관 등을 조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필자는 도의원 출마 시 선거공약으로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김좌진 장군 100주년 행사와 성역화 추진을 위해 5분 발언과 도정질문 등 수차례

추진해 온 사항으로서 충남도의회 예결위에서 뮤지컬 등 자료를 수집하고 2020 예산에서 일부 삭감된 것을 계수 조정위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어렵사리 일부 예산을 희생하게 하기도 했다.

충남 출신 독립 유공자는 1386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이중 홍성 출신의 독립 유공자는 230명으로 충남 안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가 배출한 자랑스런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도지사 방문과 함께 정책협약에 의거, 충남도에서는 김좌진 장군생가지 주변 토지매입 지원 등 성역화를 정부차원에서 홍성지역의 투쟁역사를 되살려 홍성이 전국 제 1의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성지로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2020년은 경자년 쥐띠 해로 쥐는 영리하며 번영과 다산을 기원하기도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9%로서 1%대도 안 되는데 인구가 점차 감소돼 인구 절벽현상이 심각하다. 2020년은 앞뒤 숫자도 얼마나 좋은가! 다산을 상징하는 쥐의 해를 맞아 2020년을 계기로 출산율이 높아지고 복지수도 충남을 지향하는 우리 도가 정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으

## “도민·교민 모두 안심하는 감염 대책 점검 온 힘”

긴급 대책회의 열고 상황 청취  
정확한 정보 전달·대책 점검 주문

충남도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모색했다.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오후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로부터 국내외 우한 폐렴 감염 상황을 보고받고 중앙과 도의 대응상황, 향후 계획 등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의 임시생활시설 지정 관련 현황을 청취하며 도민과 교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

문했다.

유병국 의장은 “중앙정부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조체계가 더욱 긴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장비와 인력 배치는 물론 마스크 제공 등 예방·차단과 관련한 모든 대책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상임위원장은 “귀국 교민 또한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투명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 달라”면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현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지난달 29일 김용찬 행정부지사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한 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 “충남 발전 실질적 성과 내는 해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열린·공감·책임 등 3대 목표  
선도적 지방의회 모델 정립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그동안 쌓아올린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도민 행복과 충남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나선다.

도의회는 지난달 1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의회사무처 간부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주요 성과보고, 올해 의정 여건 분석과 운영방향, 각 담당관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도의회는 올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 의정 ▲신뢰로 보답하는 책임의정 등 3대 의정목표를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선도적인 지방의회 정책모델을 정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책위원회와 의회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 특별위원회 운영, 의정모니터 내실화 등을 통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전국1위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부패방지 노력에 힘쓰고 후반기 원구성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회의록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도입 검토, 예산안 연중심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조례의 입법목적과 적법성, 효과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사후입법평가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4차 산업혁명 국제포럼 개최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

도 병행한다.

아울러 일자리정책과 중소기업 정책 자금,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 집행부의 주요 정책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의원·위원회 발의 조례안 비용 추계 체계 등을 구축할 방침이다.

유병국 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인사청문회, 예산 조사·분석팀과 정책연구원제 도입, 의정모니터와 제도개혁 TF 운영 등을 통해 선진의회 위상 정립에 매진해 왔다”며 “특히 국민권의 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혁신과 청백을 모두 이뤄낸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도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도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의회 역량 강화에 힘쓰고 도민과 소통할 것”이라며 “열린·공감·책임 의정 등 3대 목표 아래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선진 지방의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42명 의원 모두가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 4차산업 국제포럼 준비 박차

대전시의회 등과 업무협의

충남도의회가 ‘4차 산업혁명 국제 포럼’의 성공 개최를 위해 과 학도시 대전을 찾았다.

유병국 의장은 지난달 20일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장과 대전시 문창용 과학산업국장,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 김기배 박사를 차례로 만나 포럼 개최를 위한 업무 협의를 가졌다.

유 의장은 이자리에서 국내외 전

문자 섭외와 주제 선정 등 포럼 준비를 위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성공적인 행사로 치를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유 의장은 “포럼을 통해 변화를 예측 대응하고 앞으로 다가올 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정책 역량을 개발하고 충남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누리집 새 단장

충남도의회가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을 새 단장하고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누리집 개편은 의정소식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컴퓨터(PC)와 스마트폰 등 단말기나 접속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화된 화면을 지원하는 ‘반응형 웹기술’을 적용하고 메뉴를 간소화해 가독성을 더욱 높였다.

별도의 문서뷰어 프로그램 없이 첨부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고 회의록 검색기능 강화, 영상회의록 시청 시 2배속 보기, 5초

앞·뒤 이동 등 부가기능도 도입했다.

충청남도의회가 꿈꾸는  
최고의 가치는 **도민행복**입니다.

